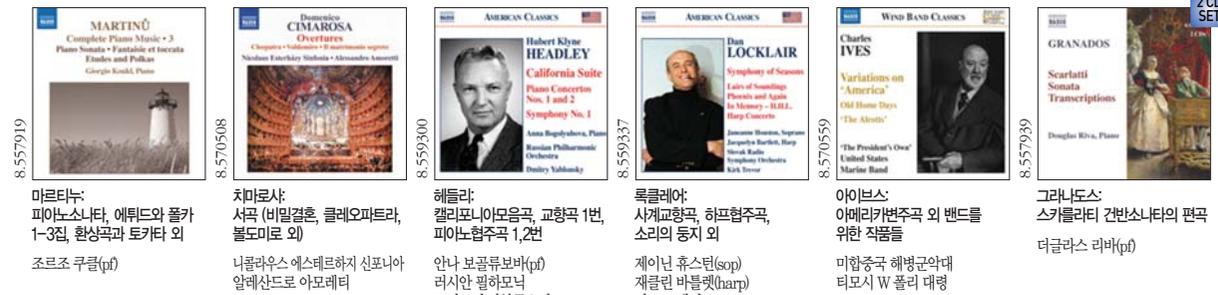


8.570419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1-4번
야첵 무직(hrn)
아마테우스 체임버
아그니에슈카 두치말

8.570416 스탠포드: 클라리넷작품집(소나타, 환상곡, 간주곡), 피아노트리오 3번
로버트 플레인(cl)
골드 피아노트리오

8.570500 리터: 6개의 비순 사중주
파올로 카를리니(bn)
이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스트링 트리오

8.570298 메트너: 바이올린소나타 3번, 3개의 야상곡, 동화 Op.20-1
로렌스 카알레(vn)
폴 스투워트(pf)



8.559319 미르타누: 피아노소나타, 에튀드와 폴카 1-3집, 환상곡과 토카타 외
조르조 쿠켈(pf)

8.570508 치마로사: 사극 (비밀결혼, 클레오파트라, 볼로미로 외)
니콜라우스 예스테르하지 시몬니아 알레산드로 아모레티

8.559300 헤들러: 캘리포니아모음곡, 교향곡 1번, 피아노협주곡 1, 2번
앤나 보클류보바(pf)
러시아인 필하모닉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8.559337 록클레아: 사계교향곡, 하프협주곡, 소리의 동지 외
제이닌 휴스턴(sop)
재클린 바틀렛(harp)
키크 트레버

8.570559 아이브스: 아메리카변주곡 외 밴드를 위한 작품들
미합중국 해병군악대
티모시 W 폴리 대령

8.570539 그라나도스: 스키타티 간반소나타의 편곡
더글라스 리바(pf)



8.559350 쿠만: 피아노소나타 3, 4번, 드림 에튀드 2집 외
돈나 아마토(pf)

8.570310 비도르: 교향곡 1-6번의 발췌, 비호의 메멘토, 고딕심포니 외
로버트 텔캬프(org)

8.570446 니르세 곤잘레스 기타 리시앙들
호세: 소나타,
마호: 소나타 BWV1003,
폰세: 변주와 피날레,
타레가: 2개의 소품

8.559379 슈베르트: 낭만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1
올리야 보르헤르트(sop)
올리히 아이젠로어(pf)

2 CD SET The Best of British 영국 클래식 걸작선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첼로협주곡 중 2악장,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1악장
윌튼: 크라운 임페리얼 스렛파이어 전주곡과 푸가
스탠포드: 글로리아, 파랑새
본월리언스: 나르는 종달새, 바다노래
텔리어스: 봄의 첫 배구기소리를 듣고
브리튼: 일요일아침
아일랜트: 홀리보이
홀스트: 행성 중 목성
핀지: 클라리넷협주곡 중 1악장
러터: 레퀴엠 중 내 주는 나의 목자
테브너: 양
하티: 피아노협주곡 중 2악장

2 CD SET The Best of British Light Music 영국 경음악 걸작선
에단셀: 바르샤바협주곡
케텔비: 페르샤의 시장에서, 수도원정원에서
베네트: 소리없는 특급살인 중의 왈츠
담린슨: 세난도
커즌: 로빈 후드 중 궁사의 행진
퀸터: 어린이사곡
그레인저: 사골정원
메이알: 회전목마
빈지: 엘리자베스의 세레나데
코츠: 램버스터 행진곡, 코넬트 가든
파난: 멜로디 메이
화이트: 버린 빌리
워렌트: 발레나춤 속하 행진곡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lpo.co.uk

슈베르트 / 미완성 교향곡 야나체 / 글라골리틱 미사



클라우우보바, 카질, 브레슬릭, 벨라첵,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런던 필, 쿠르트 마주어

2004년 로얄 알버트 홀에서 있었던 프롬스 실험음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야나체프의 글라골리틱 미사라는 다소 이질적인 조합이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 뿜어내는 마주어의 노익장이 대단하다. 특히 체코 현지 성악가들을 동원한 야나체프의 미사에서는 대편성 합창곡에 대한 이 지휘자의 감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 악단에 독일 전통을 적절히 인식한 미완성 교향곡 역시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September 2007

New Release

19세기 이탈리아의 매혹적인 만들어진 음악 사랑의 만들어진
기대했던 그 바람 그대로 여행자의 노래 4집
수퍼 베스트 컬렉션 마이클 호페 '슬픈 풍경'
노르웨이의 신비로운 바이올리니스트 수사네 룬덴

Cover Story

세계 클래식 기타계의 든든한 미래 기타리스트 장대건

세계 클래식 기타계의 든든한 미래

장대건 Daekun Jang



기타리스트 장대건

이 시대 기타 음악계를 이끌어갈 연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현재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 국제 콩쿠르 연맹에 가입된 세계적인 콩쿠르인 스페인의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 기타 부문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크게 주목 받았다. 메이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은 한국 기타 연주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후 2003년까지 루이스 밀란 국제 콩쿠르(스페인), 쿠쿨칸 국제 콩쿠르(멕시코), 사라우츠 국제 콩쿠르(스페인)에서 우승했고, 그 외에도 홀리안 아르카스 국제 콩쿠르(스페인), 페르난도 소르 국제 콩쿠르(이탈리아), 타레가 국제 콩쿠르(스페인), 기타의 봄 국제 콩쿠르(벨기에), 코리아 국제 콩쿠르(스페인),

푸엔테 헤닐 국제 콩쿠르(스페인), 알함브라 국제 콩쿠르(스페인), 안드레스 세고비아 국제 콩쿠르(스페인), 세르난셀레 국제 콩쿠르(포르투갈) 등 20여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의 입상이력은 개인적인 영예일 뿐 아니라, 한국인 기타리스트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주활동도 왕성하다. 지금까지 스페인 전 지역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멕시코, 일본, 서울 등지에서 초청 연주 했고, 멕시코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에우로파 메디테라네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 등과 협연했다. 실내악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바이올린, 플룻, 성악, 현악사중주 등과의 다양한 악기와 함께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스페인 루이스 밀란 국제 콩쿠르 실내악 부문에서 기타 4중주의 멤버로 상위 입상한 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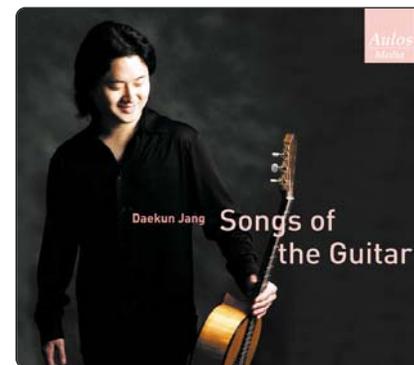
재능 있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있는 그는 스페인 아스토르가 국제 음악제, 투이 국제 기타 페스티벌, 리카르도 칩 기타 음악제, 발라게르 여름 음악제, 마드리드 헤타페 시립 음악원, 레리다 시립 음악원 등에서 초빙 교수로 일했고, 스페인, 한국, 멕시코에서는 수 차례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활동도 주목된다. 스페인 아스토르가 국제 음악제에서 기타 콩쿠르를 주관, 심사했고, 그 외 스페인 바에 데 데 구에스 국제 콩쿠르, 스페인 루이스 밀란 국제 기타 콩쿠르 솔로 부문과 실내악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장대건의 연주는 스페인 국영 텔레비전인 TV 2, Canal 9, Canal Sur, Canal Castellon, Radio 2 Clasica, 한국의

KBS, SBS, Arte TV 등에서 방영 혹은 방송되기도 했다.

장대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오 왕립음악원 그리고 에스콜라 루티에르에서 마누엘 곤잘레스(Manuel Gonzalez)와 공부하고 알리칸테 고등 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세계적인 명교수 호세 토마스(Jose Tomas)한테 배우고 1997년에 졸업 하였다. 같은 해 스위스 바젤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입학, 세고비아의 후계자이자 기타계의 최고 교육자로 손꼽히는 오스카 길리아(Oscar Ghiglia)의 지도를 받고, 2000년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학위인 솔리스텐 디플롬을 받았다. 또 졸업하기까지 고 음악 학교인 스위스 바젤 스킨라 칸토룸에서 고음악 탄현악기 연주자 피터 크로톤(Peter Croton)에게 바로크 통주저음과 르네상스 탄현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고음악 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에 대한 세미나 및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레온하르트(G. Leonhardt), 슈나이더(E. Schneider), 아리아가(G. Arriaga), 스미스(H. Smith), 쿠르탁(G. Kurtag)등 저명한 대가들로부터 이수하였다.

1997년 마리아 카날스 콩쿨부터 2003년 루이스 밀란 콩쿨까지
20여개의 국제 기타 콩쿨에서 입상한 세계 클래식 기타계의 든든한 미래



장대건 기타 리사이틀

Daekun Jang Guitar Recital in Korea

일시: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8:00

장소: 금호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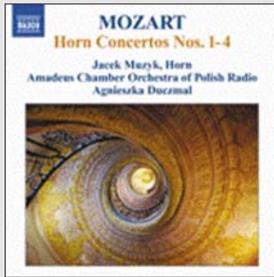
주최: (주)아울로스미디어

문의: (주)아울로스미디어 (02)922-0100

티켓예매: 티켓링크 1588-4567 www.ticketlink.co.kr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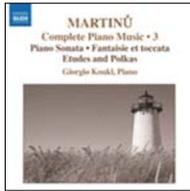


Naxos 8.570419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1-4번

야첵 무직(hrn) / 아마데우스 체임버 / 아그니에슈카 두치말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호른 연주자였던 이그나츠 호이트게프를 위해 4곡의 협주곡을 완성했다. 비록 1번의 느린 악장은 유실된 상태지만, 이 작품들은 이 악기를 위해 완성된 고급의 작품들 중 가장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본 음반에서 독주를 담당한 야첵 무직은 폴란드 출신으로, 바르샤바 필과 침머만이 이끌던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거쳐서 현재는 미국 버팔로 필의 호른 수석으로 재직 중인 연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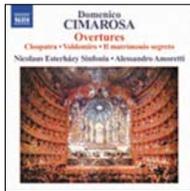


Naxos 8.557919

마르티누: 피아노소나타, 에튀드와 폴카 1-3집, 환상곡과 토카타 외

조르조 쿠클(pf)

조르조 쿠클이 낙소를 통해 진행 중인 마르티누 피아노 작품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음반. 작곡가의 일생의 기법을 담은 만년작들을 담았다. '환상곡과 푸가'와 그의 유일한 피아노소나타는 작곡가의 피아노독주곡들 중에서 가장 걸출한 대작들이다. 3세트의 에튀드와 푸가는 스메타나나 드보르작과 같은 동부 선배들의 영향이 담긴 민족적인 색채의 작품들로 끝내 살아 돌아가지 못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Naxos 8.570508

치마로사: 서곡 (비밀결혼, 클레오파트라, 볼도미로 외)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신포니아 / 알레산드로 아모레티

도메니코 치마로사는 18세기 후반기 남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다. 65편에 달하는 오페라와 함께 상당량의 종교합창곡을 남겼으며, 기악곡 쪽에서 매력적인 협주곡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은 그의 오페라 중 12편의 서곡들을 모았다. 대표작 '비밀결혼'을 비롯하여, '클레오파트라', '볼도미로', '근심스런 극장감독' 등등, 서곡들 하나하나가 남국 특유의 유려한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리듬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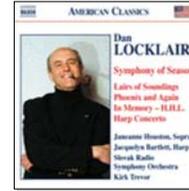


Naxos 8.559300

헤들리: 캘리포니아모음곡, 교향곡 1번, 피아노협주곡 1,2번

안나 보골류보바(pf) / 러시아 필하모닉 /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후버트 헤들리(1906-95)는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로 1940년대 미국 음악계에서 맹활약했던 인물이다. 캘리포니아 모음곡은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걸작으로 '금문교'와 '요세미티 공원'의 풍경과 '피에스타'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낭만적인 음악스타일로 표현한 작품. 시벨리우스와 닐센의 영향이 느껴지는 교향곡 1번, '아르헨탱고'라는 부제의 피아노협주곡 1번, 변화무쌍한 악상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수록.



Naxos 8.559337

록클레어: 사계교향곡, 하프협주곡, 소리의 등지 외

제이먼 휴스턴(sop) / 재클린 바틀렛(harp) /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 커크 트레버

현재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댄 록클레어의 관현악 작품집. 교향곡 1번은 영국 시인 제임스 톰슨의 시 '사계'를 보수적인 조성체계를 통해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는 In Memory-HHL'은 바버의 아디지오를 연상케하는 차분하고 애상적인 작품이다. 하프의 색다른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하프협주곡 역시 신선하다.



Naxos 8.570559

아이브스: 아메리카변주곡 외 밴드를 위한 작품들

미합중국 해병군악대 / 티모시 W 폴리 대령

아이브스는 수자와 마찬가지로 병영 인군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 역시 다수의 군악대용 음악을 완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아메리카 변주곡은 작곡가 스스로 '받은 심각한게, 받은 장난으로' 완성한 어린 시절의 작품. 제목과 달리 영국 국가 'God save king'이 주제로 사용된 재기발랄한 작품이다. '올드 홈 데이' 모음곡에는 '런던 브리지'를 비롯한 친근한 선율들을 재치있게 엮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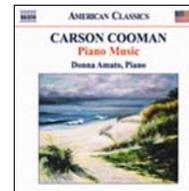


Naxos 8.557939-40

그라나도스: 스키타라티 건반소나타의 편곡

더글라스 리바(pf)

그라나도스는 알베니스, 파야, 투리나 등과 함께 근대 스페인 피아노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는 바로크 시대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선배작곡가 도메니코 스키타라티의 건반소나타들 중 26곡을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였다. 18세기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들을 모던 피아노를 위해 적절히 변화시킨 그라나도스의 감각이 돋보인다. 본 음반은 이 편곡 전체의 최초 녹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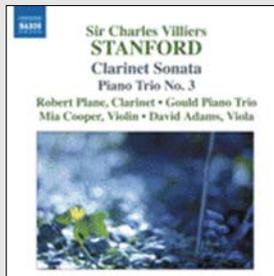


Naxos 8.559350

쿠먼: 피아노소나타 3,4번, 드림 에튀드 2집 외

돈나 아마토(pf)

미국의 촉망받는 청년 작곡가 카슨 쿠먼(1982년생)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담은 음반. 영국국가 'God save king'과 미국민요 'my country tis of thee'를 재치있게 엮은 Kayser variation, 종교적인 명상을 담은 신비로운 작품 'Dream-tombeau: Crucifixus', 음향지향적인 Dream Etude Vol.2, 친구들을 위한 짙막한 소품들을 엮은 'postcard partita' 등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관이 만화경처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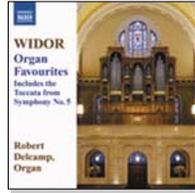


Naxos 8.570416

스탠포드: 클라리넷작품집(소나타, 환상곡, 간주곡) 피아노트리오 3번

로버트 플레인(c) / 골드 피아노트리오

찰스 스탠포드(1852-1924)는 허버트 패리와 더불어 엘가 직전의 영국 음악계를 대표했던 작곡가 겸 음악교사였다. 7편의 교향곡과 클라리넷 협주곡이 유명하며, 특히 클라리넷을 사랑하여 이 악기를 위한 매력적인 실내악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들과 피아노 트리오 3번은 그가 가장 존경했던 브람스의 잔영이 진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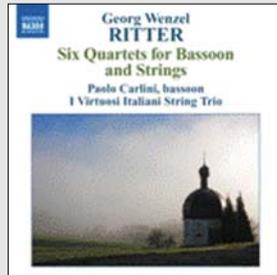


Naxos 8.570310

비도르: 교향곡 1-6번의 발췌, 바흐의 메멘토, 고딕심포니 외

로버트 델캄프(org)

샤를 마리 비도르가 오르간 독주를 위해 작곡한 10곡의 교향곡은 근대 프랑스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는 위대한 역작들이다. 본 음반에는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5번의 마지막 악장 토카타를 비롯하여 4번의 안단테 칸타빌레, 6번의 기교적인 알레그로 악장 등 1-6번 교향곡들의 하이라이트 악장들을 수록하였다. 바흐의 메멘토는 제목 그대로 위대한 옛 선배에 대한 비도르의 경모의 마음을 담은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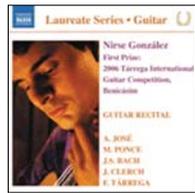


Naxos 8.570500

리터: 6개의 바순 사중주

파올로 카를리니(bn) / 이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스트링 트리오

게오르크 리터(1748-1808)는 만하임과 파리에서 모차르트와 친교를 맺었던 인물로 동시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바순 연주자로 명성을 날렸다. 유명한 만하임 궁정 악단의 일원이었으며, 이후 최고의 봉급을 받으며 뮌헨과 베를린의 궁정으로 초빙되었다고 한다. 본 음반에 수록된 6곡의 바순 사중주는 바순이라는 악기에 정통했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이 훌륭히 발휘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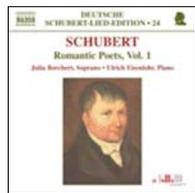


Naxos 8.570446

니르세 곤잘레즈 기타 리사이틀

호세: 소나타, 바흐: 소나타 BWV1003, 폰세: 변주와 피날레, 타레가: 2개의 소품

2006년 타레가 콩쿠르의 우승자인 니르세 곤잘레즈의 기타 리사이틀 음반. 그는 왕립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호세 루이스 로드리고 브라보를 사사했으며, 현재는 뒤셀도르프 슈만 음악원에서 기타의 대가 호이킨 클레르크를 사사 중이다.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WV1003의 기타 편곡, 스승 클레르크의 3개의 소품, 안토니오 호세의 기타소나타, 마누엘 폰세의 변주와 피날레, 타레가의 소품 등을 수록.



Naxos 8.554797

슈베르트: 낭만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1

율리아 보르헤르트(sop) / 올리히 아이젠로어(pf)

베렌라이터의 새로운 에디션에 기초한 나소스 슈베르트 리트 시리즈의 24번째 음반이자 낭만시인들의 시에 기초한 리트를 다룬 첫번째 음반이다. 뤼케르트, 플라텐, 세지의 시에 곡을 붙인 5개의 리트 op.59, 솔레겔의 연작시 '석양'에 곡을 붙인 11개의 리트, 그의 '젊은 수녀', '사랑이 나를 속이네', '아침노래' 그리고 유명한 '봄의 신앙'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896-97

라 뤼: 마니피카트 전곡, 3개의 살베 레지나 외

비바 보체 / 피터 슈베르트

피에르 드 라 뤼는 조스캥, 오브레흐트, 이작, 브뤼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플랑드르 악파의 거장이다. 레퀴엠을 비롯한 31곡의 미사, 7편의 마니피카트, 26편의 모테트가 현존하며, 30곡 가량의 세속상송들도 전해져온다. 본 음반에는 라 뤼가 남긴 7편의 마니피카트 전곡(최초의 전곡 녹음)과 더불어 3곡의 살베 레지나를 수록하였다. 살베 레지나는 선배작곡가들인 뒤파이와 뱅쇼아의 세속곡을 인용한 점이 흥미롭다.



Naxos 8.570573-74

The Best of British (영국 클래식 걸작선)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첼로협주곡 중 3악장,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1악장, 윌튼: 크라운 임페리얼, 스피트라이어 전주곡과 푸가, 스탠포드: 글로리아, 파랑새, 본윌리엄스: 나르는 종달새, 바다노래, 델리어스: 봄의 첫 뿔꾸기소리를 듣고, 브리튼: 일요일아침, 아일랜드: 홀리보이, 홀스트: 행성 중 목성, 핀치: 클라리넷협주곡 중 1악장, 리터: 레퀴엠 중 '내 주는 나의 목자', 테브너: 양, 하티: 피아노협주곡 중 2악장, 러브라: 바이올린협주곡 중 3악장, 아놀드: 스코틀랜드 춤곡 1,2번 외



Naxos 8.570298

메트너:

바이올린소나타 3번, 3개의 야상곡, 동화 Op.20-1

로렌스 카알레(vn) / 폴 스투워드(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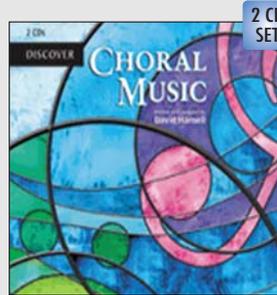
아렌스키와 타네예프의 제자였던 니콜라이 메트너는 피아노 작품들로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곡의 매력적인 작품들도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소나타인 3번 '에피카'를 필두로, 우아하고 낭만적인 3편의 녹턴, 그리고 피아노소품을 야사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용으로 편곡한 '동화'가 수록되어있다.



Naxos 8.570575-76

The Best of British Light Music (영국 경음악 걸작선)

에딘셀: 바르샤바협주곡, 케텔비: 페르샤의 시장에서, 수도원정원에서, 베네트: 오리엔트특급살인 중의 왈츠, 탐린슨: 세난도, 커즌: 로빈 후드 중 궁사의 행진, 웰터: 어린이서곡, 그레이너: 시골정원, 메이얼: 회전목마, 빈지: 엘리자베스의 세레나데, 코츠: 댄버스터 행진곡, 코벤트 가든, 파닌: 멜로디 페어, 화이트: 버핀 빌리, 워렌드: 밀레니움 축하 행진곡, 우드: 젊은이를 위한 세레나데, 토이: 콘서트 왈츠 '유혹의 무도회장', 던컨: 하이 힐 외



Naxos 8.558198-99

Discover Series: Choral Music

합창음악의 발전사를 담은 기획음반. 176페이지의 내지에는 합창음악의 역사를 충실히 해설한 데이빗 한셀의 글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합창사 연표가 수록되었다. 조스캥, 탈리스, 버드, 팔레스트리나, 빅토리아의 폴리포니 합창곡들, 몬테베르디, 카리시미, 슈츠, 샤르팡티에의 바로크 종교합창곡들, JS 바흐와 헨델의 종교걸작들,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 하이든의 벨슨미사와 '천지창조', 멘델스존과 브루크너의 모테트, 포레와 브람스의 레퀴엠, 말러 교향곡 8번, 스탠포드, 풀랑, 본윌리엄스, 브리튼의 근대합창곡들을 수록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1259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 유명 바이올린 소품들

나단 밀스타인(vn) / 보스턴 심포니 / 샤를 뮌시 외

1953년 밀스타인이 뮌시와 협연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은 미국과 프랑스에서만 LP로 발매되었던 희귀 음원이었다. 아서 파들러와 협연한 애청 소품들(노래의 날개 위에, 스와니강,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와 세레나데, 폴디나의 춤추는 인형, 포레의 꿈꾸고 나서)이 보너스로 수록되었으며, 위대한 베이스 에치오 핀차와 협연한 차이코프스키의 '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도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11117

모이세이비치가 연주하는 쇼팽

왈츠, 연습곡, 즉흥곡, 발라드 3번 외

낙소스의 모이세이비치 에디션의 11번째 음반. 1916년 그의 첫 레코딩인 '자장가'를 필두로 그가 어쿠스틱 녹음과 초기 일렉트릭 녹음을 통해 남긴 쇼팽의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즉흥곡 2번은 그가 미국과 영국에서 남긴 두 녹음을 나란히 수록하였으며, 1920년대 중반의 녹음들인 발라드 3번, 스케르초 2번, 에튀드 발체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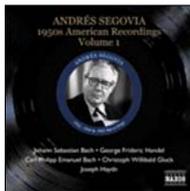


Naxos 8.111262

베토벤: 교향곡 1,4번, 브람스: 하이든 변주곡

파블로 카잘스 / 바르셀로나 카잘스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한때 지휘자로도 맹활약했던 파블로 카잘스의 일면을 담은 진귀한 음반.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녹음된 두 편, 베토벤 교향곡은 극초기 레코딩에 해당하지만 현대인의 입맛에도 전혀 진부하지 않을 정도의 신선한 감각을 보여준다. 1927년 런던 심포니를 지휘한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역시 훌륭하다. 마크 오버트 손의 탁월한 복각을 통해 80년 전의 옛 녹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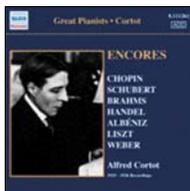


Naxos 8.111089

안드레아스 세고비아 1950년대 녹음들

JS 바흐, 헨델, 글루크, 하이든, CPE 바흐

안드레아스 세고비아는 변방의 민속악기로 치부되던 기타를 클래식 무대의 중심으로 다시 옮겨놓았던 거장이다. 본 음반에는 세고비아가 1950년대 미국에서 남겼던 녹음들 중 바흐와 헨델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귀에익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의 프렐류드를 비롯하여 무반주 첼로와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능숙하게 기타에 옮겨 놓았으며, 헨델의 유명한 사라방드 역시 기타로 다시 태어났다.



Naxos 8.111261

알프레드 코르토 앙코르 모음집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리스트, 베버, 알베니스

본 음반은 코르토가 빅터 토크머신 컴퍼니에서 남긴 일렉트릭 녹음들을 모은 것이다.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2중), 11번, 리골레토 패러프라이즈,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2중), 헨델의 유쾌한 대장간, 쇼팽의 발라드 G단조와 자장가, 즉흥곡, 왈츠, 그리고 자신이 편곡한 슈베르트의 '기도'와 브람스의 '자장가' 등을 수록.



Naxos 8.111038

브람스: 독일레퀴엠

슈바르츠코프 / 호터 / 빈 악우협회합창단
빈 필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독일레퀴엠이 카라얀이 일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다. 본 녹음은 카라얀이 해금 직후였던 1947년에 완성한 것으로, 이후 녹음들에서 경험하기 힘든 강렬한 에너지와 패기를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와 한스 호터라는 전설적인 두 가수들이 함께 하였으며, 빈 필과 빈 악우협회 합창단 역시 최상의 연주로 카라얀의 와신상담을 빛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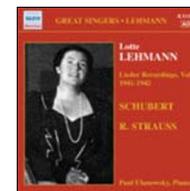


Naxos 8.111264

퍼셀: 디도와 아에네아스

플라그슈타트 / 슈바르츠코프 / 햄슬리 / 머메이드 싱어즈 & 오케스트라 / 저레인트 존스

1953년 이 음반이 발매되었을 때 영국의 그라모폰은 '우리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디도의 레코딩을 만나게 되었다'고 호평하였다. 키르스텐 플라그슈타트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라는 위대한 두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바로크 오페라의 선율들이 고아한 매력을 드러낸다. 부록으로 플라그슈타트가 노래하는 바흐의 마태수난곡 중 'erbarme dich...'와 헨델의 'Ombra mai fu'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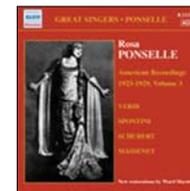


Naxos 8.111096

로테 레만: 슈베르트와 R 슈트라우스의 가곡들

아름다운 몰방앗간 아가씨 전곡, 백조의 노래 발체, 내일, 밤인사 외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의 5번째 음반. 1942년에 녹음한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몰방앗간의 아가씨' 전곡과 1년 앞서 녹음들인 '백조의 노래' 중의 일부, 그리고 R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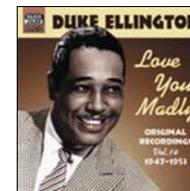


Naxos 8.111140

로자 폰셀 아메리칸 레코딩 Vol.3

베르디, 스포티니, 토스티, 마스네, 구노, 슈베르트, 린스키코르사코프

미국 출신의 소프라노 로자 폰셀은 마리아 칼라스가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가수'로 칭송했던 대가수다. 이 음반은 폰셀이 1920년대 미국에서 남긴 녹음들을 담은 세 번째 음반이다. 자신의 장기였던 아이다의 아리아들을 비롯, 토스티의 가곡들, 구노의 '아베 마리아',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나이팅게일과 장미' 등을 수록.



Naxos 8.120814

듀크 엘링턴: Love You Madly

Sultry Serenade / Hy'a Sue / Golden Cress / Don't Get Around Much Anymore / Progressive Gavotte / Love You Madly / Build That Railroad (Sing That Song) / Fancy Dan / VIP's Boogie / Monologue (Pretty And The Wolf) / Jam With Sam / Deep Night / Please be Kind / Smada / Take The 'A' Train / Rock-Skippin' At The Blue Note / Satin Doll / Skip Deep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Dacapo 6.220516

랑고르: 교향곡 2번, 3번 (Hybrid-SACD)

페르 살로(pf)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합창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루에드 랑고르(1893-1952)는 20세기 초반 덴마크 음악계의 양광 테리블로 유명세를 떨쳤던 작곡가였다. 그가 남긴 16편의 교향곡은 모두가 전통적인 교향곡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2번 '봄의 깨어남'에는 소프라노 솔로가, 3번 '청춘의 활기'에서는 베토벤의 합창환상곡과 같은 피아노 솔로와 합창이 장쾌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일반 CD와 동일한 가격의 Hybrid-SAC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naxos.com

L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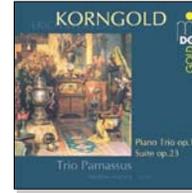


LPO 0029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야나체: 글라골리틱 미사

클로우보바, 카길, 브레슬릭, 벨라체 /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 런던 필 / 쿠르트 마주어

2004년 로얄 알버트 홀에서 있었던 프롬스 실황음반.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과 야나체의 글라골리틱 미사라는 다소 이질적인 조합이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 뿜어내는 마주어의 노익장이 대단하다. 특히 체코 현지 성악가들을 동원한 야나체의 미사에서는 대편성 합창곡에 대한 이 지휘자의 강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 악단에 독일 전통을 적절히 이식한 미완성 교향곡 역시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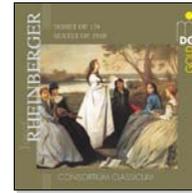


MDG 303 1463-2

코른골트: 피아노 트리오 Op.1, 모음곡 Op.23

트리오 파르나수스 + 마티아스 볼름(vn)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음악신동으로 빈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에리히 코른골트. 피아노트리오에는 그가 13살때 작곡한 것으로 후기낭만음악의 진수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이 작곡가의 조속했던 재능을 확인케 하는 작품이다. 모음곡은 오르손을 잃은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완성한 곡으로 피아노파트가 왼손만을 위해 작곡된 흥미로운 작품이다.



MDG 301 1453-2

라인베르거: 육중주 Op.191b, 9중주 Op. 139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라인베르거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소국인 리히텐슈타인 출신의 작곡가로 19세기 후반 독일 오르간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실내악분야에도 다수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대편성 실내악 두 작품은 최근에야 재발굴된 희귀작들이다. 9중주(fl, ob, cl, bn, hrn, 현4부)는 초기작인 8중주에 플루트 파트를 더하여 재편한 곡이며, 6중주 역시 피아노트리오 Op.191a를 편곡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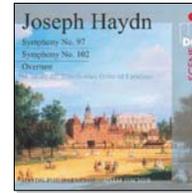


MDG 609 1457-2

헨델: 타메를라노 HWV18 (3 for 2)

니콜라스 스파노스, 마타 카츨리 외 / 게오르게 페트로우 / 파트라스 오케스트라

<타메를라노>는 14세기 전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동방의 정복자 터무르(타메를라노)와 오스만의 술탄 바야지트(바자제) 사이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삼은 3막 오페라다. 비발디 역시도 동일한 내용으로 오페라 <바자제>를 완성하였다. 페트로우와 그리스의 음악가들은 이미 <오레스테>와 <크레타의 아리안나>로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오리지널 버전 전곡의 최초 녹음.



MDG 901 1452-6

하이든: 교향곡 97, 교향곡 102번 (Hybird-SACD)

아담 피셔 /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닉

아담 피셔는 도라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이든 교향곡 전곡녹음을 완성한 지휘자다. 현재 엠테게를 통해 두 번째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를 진행 중으로 그 세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97번과 102번은 모두 잘로몬에 의해 런던에 초대받았던 기간 동안에 완성한 곡들로, 초연시 런던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었던 작품들이다. 오랫동안 하이든이 봉직했었던 에스테르하지 궁정 내의 하이든 홀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다.



www.mdg.d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603 1464-2
MDG 903 1464-6 (Hybrid-SACD)

모차르트: 돈조반니 (원드양상블 편곡)

오페라 센차 원드양상블

오페라 돈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생전부터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초연직후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편곡작품들이 등장하였는데, 본 음반은 18세기말 요제프 트리에벤제가 관악 8중주(각 2대의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와 더블베이스 편성을 위하여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쾰른소재의 서독일방송(WDR) 교향악단원들로 구성된 오페라 센차 원드양상블이 연주를 맡았다.



www.kkv.no

KKV(Kirkelig Kulturverksted)



FXCD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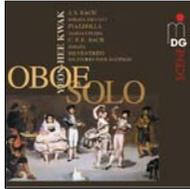
아른트 하우겐 아코디언 편곡 애창곡

연주: 아른트 하우겐 & 토레 레브그렌(아코디언), 호콘 닐센(더블베이스) 등

찬송가로 유명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란 곡이 아코디언으로 산뜻하게 울려 퍼지며 시작되는 이 음반. 아코디언 외에 오르간, 더블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함께한 애창 성가곡집이다. '오 영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 놀라운 구세주', '그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기쁨' 등 주로 성가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풀카 풍의 멜로디로 밝고 경쾌하게 들려준다. '만세반석 열리니'란 찬송가가 이렇게 느리게 연주되는 것은 들어본 일 없다. 모두 너무도 편안한 음악들이다.



지난 2007년 6월 18일 독일 음반 아카데미(Deutsche Phono-Akademie)에서 발표한 2007년 에코 클래식(Echo Klassik) 어워드 수상음반 리스트에 포함된 엠데게의 음반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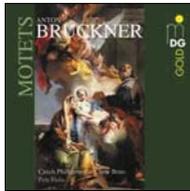
MDG 603 1423-2

Category 3
Instrumentalist of the Year Oboe Solo:
곽연희(ob) with works by Bach, Piazzolla, Silvestrini



MDG 619 1379-2

Category 3
Instrumentalist of the Year Nicolai Paganini:
Caprices op. 1 arr. for saxophone
Raaf Hekkema, saxophone



MDG 922 1422-6 (Hybrid-SACD)
MDG 322 1422-2 (CD)

Category 5
Vocal Ensemble of the Year Anton Bruckner:
Motets Czech Philharmonic Choir Brno / Petr Fiala, conductor



MDG 645 1401-2

Category 8
Classic without Limits Conlon Nancarrow :
Player Piano Vol. 1, Studies 1-12
B?sendorfer-Ampico Player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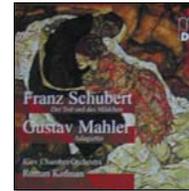
MDG 937 1366-6

Category 19
Surround-Recording of the Year Franz Liszt :
Oratorio <Christus> Beethoven Orchester Bonn
Roman Kofman, conductor



www.md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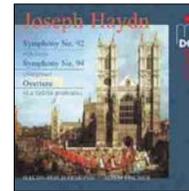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901 1315-6

Schubert-Mahler: String Quartet 'Death & Maiden', Adagio
Kiev Chamber Orchestra / Roman Kofman, cond.

말러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말리는 슈베르트의 인기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를 보다 풍성한 소노리티를 드러내는 훌륭한 현악합주용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말러의 느린 악장 중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5번 교향곡의 아다지오테가 멋진 커플링을 이룬다.



MDG 901 1325-6

하이든: 교향곡 92번 '옥스퍼드', 94번 '놀람'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 아담 피셔

2006년 ECHO Klassik 추천음반 / 펭귄가이드 ***

이 음반은 대단히 효과적인 여러순간들을 제공한다. 밸런스, 음장감, 현장감이 뛰어나다. -Fanfare- 피셔와 그의 오케스트라는 모범적인 밸런스에 힘입어 드라마틱하고 표정풍부한 연주를 들려준다. -Sunday Times-



MDG 901 1395-6

요제프 & 미카엘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볼프강 바우어, 트럼펫 / 뷔템베르거 체임버 오케스트라 / 루벤 가차리안

과거 일요일 아침을 깨웠던 '장학퀴즈'의 바로 추억의 그 음악, 파파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1993년 ARD 콩쿠르 우승자이자, 슈투트가르트 WDR 오케스트라의 수석 겸 볼프강 바우어 콘소트의 리더인 독일 정상급 트럼펫터 볼프강 바우어의 화려한 기량으로 만난다. 여기에 '암함'이라는 재미있는 표제의 교향곡 83번과 동생 미카엘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과 세레나데를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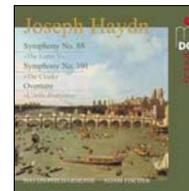


MDG 901 1425-6

베르크: 서정모음곡, 베베른: 관현악변주곡,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번

클라우디아 바라인스키(sop) / 무지콜레기움 빈터투르 / 약 판 스톤

20세기 음악에 큰 획을 그었던 신인악파 3인방의 대표곡들을 한 음반에 묶었다. 쇤베르크의 현악사중주 2번은 아직 작곡가가 조성체계 안에 남아있던 시절에 완성한 작품, 당시 유행하였던 '당신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의 선율을 차용하였다. 서정모음곡은 베르크가 남긴 인기작의 하나로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매력적인 작품이다. 베베른의 관현악변주곡 역시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이다.



MDG 901 1441-2

하이든: 교향곡 88번 'V', 교향곡 101번 '시계'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 아담 피셔

Stereoplay 오디오파일 추천음반 92번과 94번을 담은 첫 음반의 큰 성공이후 두 번째로 등장한 아담 피셔의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가장 유명한 교향곡의 하나인 101번 '시계'와 작곡가의 유머 감각이 넘치는 작품인 교향곡 88번과 더불어 오페라 <무인도>(L'isola disabitata) 서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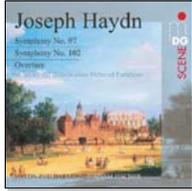


MDG 901 1444-6

마르탱: 코르넷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

크리스티안 슈토티 (알토) / 약 판 스텐(지휘) / 빈터투르 무지클레기움 오케스트라

릴케의 유명한 산문시를 토대로 완성한 본 성악작품은 스위스 작곡가 마르탱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르탱은 자신의 억눌린 자아의식을 전쟁 중의 군인의 이미지를 빌려서 표현해내었던 릴케의 이 작품을 통해 2차대전 중의 혼란상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전쟁의 혼란과 몽환적인 의식세계를 표현해낸 작곡가의 독특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텍스트의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낸 보컬의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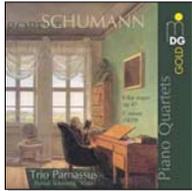


MDG 901 1452-6

하이든 : 교향곡 97, 교향곡 102번

아담 피셔 /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아담 피셔는 도라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이든 교향곡 전곡녹음을 완성한 지휘자다. 현재 엠테게를 통해 두 번째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를 진행 중으로 그 세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97번과 102번은 모두 잘로몬에 의해 런던에 초대받았던 기간 동안에 완성한 곡들로, 초연시 런던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었던 작품들이다.



MDG 903 1414-6

슈만: 피아노 사중주 Op.47, 피아노사중주(1829년작)

트리오 파르나수스(하리올프 솔리히티히, 비올라)

실내악 명가 MDG의 피아노 트리오 장르를 책임졌던 trio 파르나수스가 슈만의 피아노사중주에 도전하였다. Op.47은 피아노오중주 Op.44의 유명세만큼은 아니지만, 작곡가가 남긴 가장 뛰어난 실내악 레퍼토리의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반면 슈만이 19세에 완성한 C단조 사중주는 그동안 연주불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요아힘 드라하임의 교정 작업을 거친 뒤 최초로 녹음되었다.



MDG 903 1420-6

레곤디 : 콘체르티나를 위한 작품들

헬무트 C 야콥스, 아코디언

콘체르티나는 지금은 사라진 손풍금과 유사한 구조의 리드악기. 기타음악들로 유명한 제네바 출신의 낭만파 작곡가 레곤디가 이 비운의 악기를 위해 완성한 음악들을 아코디언의 명인 헬무트 야콥스가 연주를 맡았다. 이 악기를 다시 재현하지는 못했으나, 구조적으로나 음색적으로 가장 유사한 악기인 아코디언을 통해 연주되었기에 작품들의 매력을 감상하기에는 그리 무리가 없을 것이다.



MDG 903 1464-6

모차르트: 돈조반니 (윈드앙상블 편곡)

오페라 센차 윈드앙상블

오페라 돈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생전부터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초연직후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편곡작품들이 등장하였는데, 본 음반은 18세기말 요제프 트리에벤제가 관악 8중주(각 2대의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와 더블베이스 편성을 위하여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쾰른소재의 서독일방송(WDR) 교향악단원들로 구성된 오페라 센차 윈드앙상블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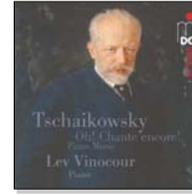


MDG 903 6396-6

슈만: 피아노오중주,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Alliage Saxophone Quartett & 장은배, piano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슈만과 멘델스존슈만의 실내악 걸작인 피아노 오중주를 4대의 색소폰과 피아노라는 독특한 악기조합으로 감상하는 재미가 각별하다. 여기에 멘델스존의 인기작 '한여름밤의 꿈'의 대표곡들을 동일한 악기편성으로 연주하였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지니는 다양한 매력들을 한껏 만끽하는 음반. 우리 피아니스트 장은배가 피아노 파트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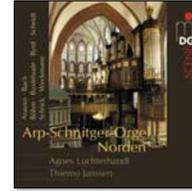


MDG 904 1397-6

차이코프스키 : <사계> 외 피아노 작품들

레프 비노쿠르 (1901년산 슈타인웨이)

12곡의 피아노연작 '사계'는 차이코프스키의 가장 널리 알려진 피아노작품이다. 전곡 모두가 각 달의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6월(벚노래)과 11월(트로이카)이 특히 유명하다. 그 외에도 베버의 소나타의 론도악장을 편곡한 '무궁동',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에 대한 리스트의 피아노편곡, 러시아색채가 물씬 풍기는 '돛카'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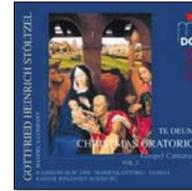


MDG 906 1363-6

Arp-Schnitger-Orgel Norden

Agnes Luchterhandt & Thiemo Jansen, Organ

북독일은 17세기 오르간 제작자들의 메카였다. 당대의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인 아르프 슈니트거가 로르텐 루드거리 교회에 설치한 오르간은 이 일대의 가장 크고 훌륭한 악기의 하나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건물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음향과 MDG의 2+2+2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소리의 놀라운 향연을 펼쳐 보인다.



MDG 905 1369-6

슈텔첼 : 크리스마스 칸타타, 가스펠 칸타타, 테 데움

헨델스 컴퍼니 / 랭고 마리아 칸토라이 / 라이너 요하네스 홀부르크

슈텔첼은 바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다수의 기악곡과 함께 1200여 편의 칸타타를 포함하는 방대한 양의 종교작품들을 양산하였다. 음악학자 마테존은 '감각과 지식을 겸비한 위대한 작곡가'라고 그를 칭송하였고 바흐도 라이프치히 시절 이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곤 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슈텔첼 음반으로, 독일 바로크 종교곡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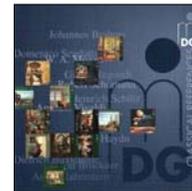


MDG 906 1437-6

프랑크 & 랑글레 : 오르간 작품집

올페르트 슈미트 (엠빙겐 마틴 성당 오르간)

독일의 중견 오르가니스트 올페르트 슈미트가 프랑크 근대 오르간 걸작들에 도전하였다. <전주곡, 아리아 피날레>와 <전주곡, 코랄과 푸가>는 프랑크가 만년에 남긴 피아노작품들. 슈미트는 프랑크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인 오르간으로 이 두 작품을 웅대하게 연주하였다. 랑글레의 소품집은 오르간 또는 하모니움으로 연주가능한 작품이집, 그랜드 오르간으로 연주했을 때의 연주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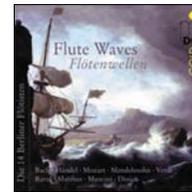


MDG 906 1449-6

Inspirations(영감의 음악들)

독일 최고의 톤마이스터 회사 엠테게가 내놓은 SACD 오디오파일

- 자연스러움의 극치, LP가 부럽지 않다! - 스튜디오 녹음을 하지 않는 회사의 녹음철학이 그대로
- 최고의 평가를 받은 SACD 레퍼토리에서 엄선! - 일본 그라모폰, 스테레오 리뷰에서 최고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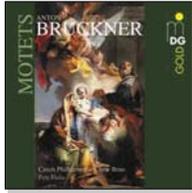


MDG 908 1396-6

Flute Wave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 (14 베를린 플루티스트)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은 그 이름 그대로 베를린에 기반을 둔 일급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트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비상설 앙상블로, 베를린 필의 수석이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피콜로에서 더블베이스플루트에 이르기까지 플루트족의 모든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내는 독특한 소노리티가 귀에 익은 애청곡들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브루크너: 모테트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 페트르 피알라

11개의 거대한 규모의 교향곡들로 대변되는 브루크너이지만, 그의 또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종교합창곡이다. 3편의 미사, 테데움이 출중하며, 아카펠라합창을 위해 작곡한 다수의 모테트들 역시 간과하기 쉬운 이 작곡가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Ave Maria, Locus iste, Pange lingua 등이 탁월하며, 다양한 조성으로 제시되는 Tantum Ergo 연작 다섯 편도 흥미롭다.

MDG 922 1422-6



Grieg: Peer Gynt, Mozart Piano Sonatas (arr for 2 Pianos)

Pianoduo Trenkner / Speidel

본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그리그에 의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된 것들이다. 이 작업을 통해 모차르트의 천진난만한 선율들이 낭만시대의 화려한 외형으로 재포장되었다. 더불어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관현악곡인 '페르귄트 모음곡' 이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MDG 930 13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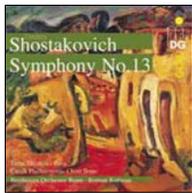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8번

로만 코프만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로만 코프만의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제4탄.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과 독일의 주요 오케스트라로 급성장 중인 본 베토벤 홀 오케스트라가 쇼스타코비치의 전쟁교향곡 2번째 작품인 8번 교향곡에 도전하였다. MDG의 생생한 녹음이 작품의 드라마틱한 특성을 확연히 부각시킨다.

MDG 937 12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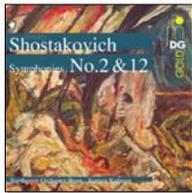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13번 '바비야르'

타라스 쉬톤다, 베이스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 로만 코프만

러시아내 유대인들의 고통과 스탈린 치하의 공포정치를 비판했던 엠티첸코의 텍스트를 대편성 남성합창과 관현악으로 스펙터클하게 그려내었던 교향곡 13번 '바비야르'를 담았다. 우크라이나 국립 오페라의 간판스타인 정통 슬라브 베이스 쉬톤다의 단단한 저음과 체코필하모닉 합창단의 목직함 앙상블이 작품의 스케일을 한층 장대하게 만들어준다.

MDG 937 12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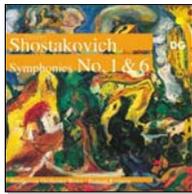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2번 <10월 혁명>, 12번 <1917년>

로만 코프만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이번 신보에는 작곡가의 15교향곡 중 가장 소비에트 정신에 투철한 작품 2편을 수록하였다. 10월 혁명 10주년 기념작품인 교향곡 2번은 합창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선동 작품. 스탈린 사후인 1961년에 작곡된 교향곡 12번은 과거만큼 정치적인 압박을 받지 않던 시대였음에도 소비에트주의자의 사명감으로 완성한 작품. 최고의 음향으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의 다이내믹을 만끽하게 되는 음반.

MDG 937 1206-6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1번 & 6번

로만 코프만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의 일곱번째 음반. 학창시절 발표되어 청년 작곡가의 천재적인 재능을 과시했던 교향곡 1번과 그로부터 13년 후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확립성에 대한 반감을 작품 내면을 통해 은밀히 표출했던 의미심장한 작품인 교향곡 6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MDG가 자랑하는 최고의 음향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MDG 937 1207-6



리스트: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

여러 가수들 / 체코필하모닉 합창단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 로만 코프만

젊어서 화려한 비르투오조의 삶을 살았던 리스트는 만년에 가톨릭에 귀의하여 사제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예수의 일생을 탄생, 공생애, 수난과 부활 세 단락으로 음악으로 표현한 대작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는 이러한 작곡가의 신앙심을 정성껏 음악으로 표현해낸 걸작이다. 대편성 관현악과 합창, 오르간이 어우러지는 이 스펙터클한 작품이 SACD의 멀티채널을 통해 한층 생생하게 다가온다.

MDG 937 1366-6



슈베르트 : 피아노소나타 D959, 피아노를 위한 춤곡 모음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피아노)

정통 독일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던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의 장점이 다시금 빛을 발한다. 슈베르트가 사망한 해인 1928년에 완성된 소나타 D959는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로부터 인용된 여러 선율들이 수수께끼처럼 얽혀있는 흥미로운 작품. 슈베르트가 가곡 못지 않게 피아노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걸작이다.

MDG 940 1440-6



Brahms: Piano Music Op.116-119

Elisabeth Leonskaja, piano

롱티보 콩쿠르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구소련을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로 각광받았던 레온스카야. 또한 리히터의 오랜 듀오 파트너로서도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그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연주하는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 작품들이 각별하다. 녹음에 사용한 악기는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MDG 943 1349-6



멘델스존 : 피아노협주곡 1번 & 2번, 피아노 소품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 일란 볼코프

멘델스존의 두 협주곡은 라인 강 일대로 떠났던 신혼여행의 달콤함과 이탈리아 여행에서 경험했던 남국의 강렬한 태양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여류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가 이제 막 20대를 벗어난 젊은 차세대 거장 일란 볼코프가 이끄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와 호흡을 맞추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 송을 비롯한 피아노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MDG 943 1421-6



랑고르: 교향곡 2번, 3번

페르 샬로(pf)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합창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루에드 랑고르(1893-1952)는 20세기 초반 덴마크 음악계의 양광 테리블로 유명세를 떨쳤던 작곡가였다. 그가 남긴 16편의 교향곡은 모두가 전통적인 교향곡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2번 '봄의 깨어남'에는 소프라노 솔로가, 3번 '청춘의 활기'에서는 베토벤의 합창환상곡과 같은 피아노 솔로와 합창이 장쾌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일반 CD와 동일한 가격의 Hybrid-SACD)

Dacapo 6.220516



Dacapo 6.220518

닐센 : 관현악작품집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그리그, 시벨리우스와 더불어 후기낭만시대의 북유럽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카를 닐센. 6개의 교향곡 외에도 오페라나 극부수음악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소품들이 망라되었다. 두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와 '사울과 다비드'의 삽입곡들 외에도 랩소디 서곡, '판과 시렁크스', '큐피드와 시인' 서곡 등등 작곡가의 예리한 감각과 유머,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가득하다.



Dacapo 6.220520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전집 Vol. 5

비네 브린도르프 (합부르크 성 야코비 교회 오르간)

북스테후데는 청년 바흐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유명하다. 다카포의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시리즈의 5번째 음반인 이번 신보에는 두 편의 마그니피카트와 테 데움, 5편의 코랄 전주곡 등 종교적 색채가 충분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작곡가가 청년시절 슈나이더만을 사사한 장소였던 합부르크의 성 야코비 교회의 오르간의 고아한 사운드가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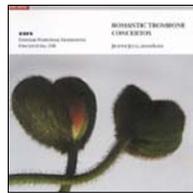


Dacapo 6.220521

닐센: 현악사중주 Op.13 & 44, 현악오중주

영 데니쉬 스트링 콰텟 + 팀 프레데릭센 (비올라)

본 음반에 수록된 2편의 현악사중주와 닐센의 유일한 현악오중주는 그가 남긴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4명의 심대 연주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영 데니쉬 사중주단은 트론티하임 실내악 콩쿠르, 덴마크 음악평론가 상 등을 석권하면서 나이를 초월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다.



Dacapo 6.220526

로맨틱 트럼본합주곡 (홀름보에, 힐드고르, 요르겐센, 그론달)

에스페르 울(tb)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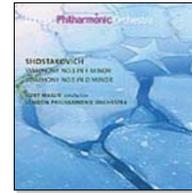


Dacapo 6.220540

모차르트: 교향곡 15-18번

아담 피셔 /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오데타

만하임 국립극장 음악감독시절, 시노폴리의 급서로 위기에 빠졌던 바이로이트의 반지 프로젝션을 훌륭히 대타로 치루어내었던 아담 피셔. 동생(이반 피셔)와 더불어 헝가리 음악계의 기대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하이든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던 소수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고전교향곡에 대한 그의 심미안이 모차르트가 16세 때 남긴 4편의 교향곡들에서도 다시금 빛을 발한다.



LPO 000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 교향곡 5번

쿠르트 마주어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의 장엄한 연주 - The Guardian
권위를 인증 받은 1번 교향곡의 강력한 연주 - Financial Times



LPO 0004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심포닉 댄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로프스키에 의해 눈부시게 연출된 죽음의 섬 - The Guardian
심포닉 댄스의 연주는 한마디로 대단히 뛰어나다 - Daily Telegraph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 유로프스키의 2003/4년 실황



LPO 0005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 7번

파보 베르글룬트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시대 최고의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핀란드 출신의 거장 파보 베르글룬트의 최신 시벨리우스 교향곡집. 작곡가의 가장 인기높은 교향곡 두 편을 모았다. 교향곡 2번은 압도하는 힘과 불타는 열정이 가득한 연주다. - The Guardian
베르글룬트가 지휘한 교향곡 7번은 파워와 응집력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 - Independent



GSO SACD02

EUROPE'S FINEST

에테보리 심포니 / 마리오 벤자고

자연지향적인 뛰어난 음향으로 오디오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프리오스에서 자신 있게 준비한 최고의 클래식 오디오파일 음반. 네메 에르비와 함께했던 수많은 명반들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스칸디나비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에테보리 심포니가 현 상임지휘자 마리오 벤자고와 함께 녹음한 고급의 관현악 애청곡들을 4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SACD에 담았다. 에테보리 심포니의 화려한 합주력과 프로프리오스의 고해상도 녹음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음반.



PRSACD 2025

스웨덴의 봄과 사랑의 노래

스톡홀름 대학 합창단 / 카린 빈테르

1905년 창단되어 백년을 역사를 지닌 스톡홀름대학 합창단이 봄과 사랑을 주제로 한 스웨덴의 전통노래들만을 모아 불렀다. 1988년부터 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여성 지휘자 카린 빈테르는 여성의 섬세한 감성으로 이 합창단을 더욱 다듬어서 세련된 합창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봄노래들은 새순 돋는 가지에 나누끼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사랑노래들은 애절하지만 북유럽 분위기 가득 담아 따스하게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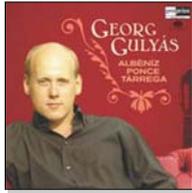


PRSACD 2028

20세기 스웨덴 오르간 음악

에릭 룬트크비스트 (오르간)

힐딩 로젠베리, 하랄드 프리클리프, 오토 올손, 구노 쇠데르스텐 등 스웨덴 현대 오르간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오르간 음악은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음반에 담기 가장 까다로운 것에 속하는데, 이 음반은 SACD 포맷으로 프로프리우스 사운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다. 폭넓은 대역에 담긴 부드럽고 사실적인 오르간 음악은 바로 악기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PRSACD 2030

게오르크 굴리아스가 연주하는 스페인 기타 명곡

게오르크 굴리아스 (기타)

타레가, 알베니스, 투리나, 모푸, 풍세 로드리게스 등 스페인 기타 명인들의 명곡들을 담은 음반. 음악은 세련된 음색을 추구하고, 따스하고 감각적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타레가의 명곡들로 시작한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매력적인 작은 왈츠인 '두 명의 작은 아가씨들'도 아주 귀엽다. 알베니스의 '탱고', 격정적인 투리나의 음악, 그리고 끝으로 유명한 '라 콤파르시타'가 후안 도밍게스의 편곡으로 연주된다.



PRSACD 2032

달라르나 지방의 스웨덴 민요들

웁살라 대성당합창단 / 밀케 팔크, 지휘 / 앤드류 캐닝, 오르간

스웨덴 중북부 고산지역인 달라르나지방은 울창한 삼림과 맑은 호수로 이어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 16세기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에 기틀이 되었던 지역으로, 자신들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높다. 이 지역의 민요를 이 곳 출신 작곡가 닐스 린드베리가 오르간반주의 합창음악으로 편곡하였고 웁살라 대성당합창단이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PRSACD 2033

PASSIO SANCTARUM FILIARUM

복스 실렌티(Vox Silentii)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신비로운 모노디 성가들을 아끼는 이들이라면 이 음반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복스 실렌티의 두 멤버들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음성으로 기독교 수난사를 장식했던 여러 성녀들에게 바쳐진 중세 성가들을 노래한다. SACD 포맷으로 옮겨진 프로프리우스의 뛰어난 녹음기술이 인성(人聲)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디오파일용으로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PRSACD 2035

Julens Ljus (The Light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빛)

스톡홀름 학생 남성합창단 (Stockholms Studentansare) / 카린 울드그렌(지휘)

프로프리우스가 내놓은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주목할 만한 캐럴 음반. 1905년 창립된 스웨덴 학생 남성합창단은 합창 강국 스웨덴에서도 오랜 역사와 우수한 앙상블로 큰 명성을 누리고 있는 단체이며, 1990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애청곡들을 담은 이 음반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장식해줄 것이다.



PRSACD 2036

Dancing Bach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

소편성으로 실내악적인 정치함을 강조한 두 편의 관현악 모음곡 외에도 솔로 악기를 위한 바흐의 인기작들을 색다른 악기조합을 통해 연주하고 있다. 바순으로 연주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들의 단편들이나, 비올라로 연주하는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비올라와 바순 이중주로 연주하는 인벤션들이 바흐 음악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변화가능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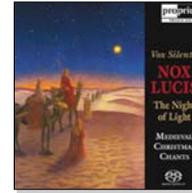


PRSACD 2037

몬테베르디 / 카스텔로 / 카리시마: 바로크 성악곡집(Hybrid-SACD)

하모니 오브 보이시스 / 프레드릭 말름베리

하모니 오브 보이시스는 2003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단체이지만, 현재 스웨덴을 대표하는 바로크 보컬 앙상블로 급성장하였다. 본 음반에서는 몬테베르디의 유명한 '넵프의 탄식'을 비롯하여, 초기 바로크의 호모포닉 성악곡의 진수를 들려준다. 역사적인 정격성과 창의적인 해석의 절묘하게 조화된 이들의 연주가 프로프리우스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녹음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올 것이다.



PRSACD 2038

Nox Lucis (The Night of Light: 빛의 밤)

복스 실렌티(Vox Silentii)

크리스마스를 위한 중세 찬트들. 두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복스 실렌티는 그간 여러 중세 음악 음반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해왔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찬트 Hodie Christus natus est(오늘 그리스도 나셨네)를 비롯한 중세 크리스마스 성가들로 구성된 이 음반은 너무나 소비적이고 환락적인 행사로 변질되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신비롭고도 경건한 본질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PRSACD 2039

JS 바흐: 오르간 작품과 코랄 (Hybrid-SACD)

울프 사무엘스(오르간) /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 / 요한 함마르스트림

1842년에 건립된 올름 교회의 오르간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명기로 이름 높다. 이 오르간의 화려하고도 고아한 사운드, 프로프리우스의 뛰어난 녹음, 멀티채널 SACD의 입체음향으로 감상하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이 각별하다. 일부 코랄 전주곡들에는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이 노래하는 오리지널 코랄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승고한 느낌의 종교적인 감동을 들려준다.



PRSACD 7079

Jazz at the Pawnshop Vol.2

아르네 돔네루스(색소폰) 외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Jazz At The Pawnshop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76년 12월 6일과 7일에 걸쳐 녹음된 아르네 돔네루스 퀸텟의 숨겨진 레코딩을 담고 있다. 음악 팬들에게 친숙한 'Over The Rainbow' 'It Don't Mean A Thing' 등 신곡면에 있어서 전작을 능가한다. 탁월한 레코딩은 마치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듯 환상적인 생동감과 선명함을 선사한다.



PRSACD 7742

The Birds and the Spring

베틀 베리, 스톡홀름 마테우스 교회 오르간과 외스테르예틀란트 봉가 교회 오르간

이 음반은 프로프리우스가 1974년에 발매한 전설적인 두 오르간 레코딩 LP를 SACD 포맷으로 합본한 것이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두 대의 일급 오르간들의 화려한 사운드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급 연주자인 베틀 베리의 우수한 연주가 오르간 음악의 참 매력을 심본 느끼게 만든다. 오르간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오디오 마니아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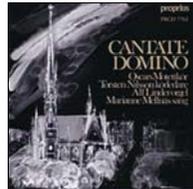


PRSACD 7744

Antiphone Blues

아르네 돔네루스(색소폰) & 구스타프 스요크비스트(오르간)

색소폰과 오르간. 무언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독특한 악기편성이 들려주는 클래식 소품들과 유명 흑인영가와 스웨덴 성가와 듀크 엘링턴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구스타프 스요크비스트가 연주하는 오르간의 선율과 아르네 돔네루스의 부르스적 색채가 강한 색소폰이 만들어 내는 오묘한 조화의 환상적 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이다. 이미 오디오 파일 매니아들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음반이다.



PRSACD 7762

칸타테 도미노

오스카스 모테트 콰이어 / 토르스텐 닐손 외

세계의 대표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알프 린다르의 오르간 독주를 간간이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영국의 말콤 서전트가 편곡해 "자장가"라는 타이틀로 수록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재현하는 우리의 민요 아리랑의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시종일관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울림이 매우 매력적이다.



PRSACD 7778

Jazz at the Pawnshop Vol. 1

아르네 돔네루스(색소폰) 외

대표적인 재즈 오디오 파일용 음반.

1976년 조그마한 재즈클럽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지금껏 발표된 어느 라이브 음반보다도 생생한 현장감과 뛰어난 녹음을 자랑한다. 특히 아르네 돔네루스 콰이어가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비브라폰 연주는 미국의 그 어느 재즈 밴드보다도 스윙감이 물씬 풍기는 감칠 맛나는 재즈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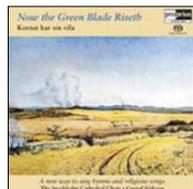


PRSACD 9086

올손: 레퀴엠

구스타프 바사 오라토리오 콰이어 / 안더스 올손, 지휘 / 스웨덴 로알 오페라

오토 올손 (1879~1964)은 종교합창곡과 오르간 음악 분야에서 크게 활약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크랑크, 비도르 등의 프랑스 오르간악파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낭만 음악의 전통과 전통 대위법에 충실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레퀴엠은 그가 25세 되던 해에 완성한 작품으로 마치 브람스, 프랑크 그리고 포레의 종교합창곡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인간미와 숭고한 아름다움을 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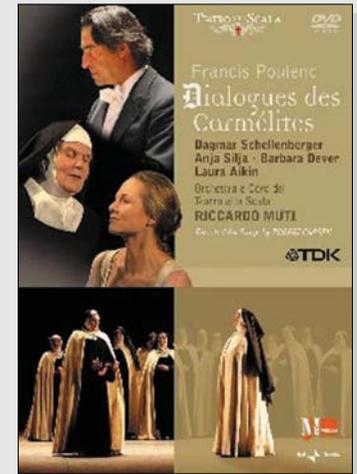


PRSACD 9093

NOW THE GREEN BLADE RISETH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 외

전통적인 성가라 하면 오르간의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떠올린다. 어쩌면 너무나 틀에 박혀 있는 음악이라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떨치게 하는 음반. 기타와 플루트, 그리고 한결 부드러워진 오르간의 울림, 잘 정리되어 울려 퍼지는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음성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 음반은 1976년 새롭게 정리된 '스웨덴 성가집'에서 뽑은 곡들이며 유명한 'Spread Your Wings Over Me' 가 포함.



TDK DVWW-OPDDC

플랑: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

초연 50주년을 맞은 20세기의 가장 감동적인 오페라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오페라 중에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낸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플랑의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는 예외다. 프랑스 오페라임에도 1957년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니 2007년으로 겨우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젊은 작품'이지만 드라마로도 뛰어나고, 현대작곡가로는 드물게 친근한 곡을 만들었던 플랑의 음악도 아름답다. 이 오페라는 완전히 종교적인 작품이며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 치하의 카르멜 파 수도원이 배경이다. 귀족의 딸로 수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블랑슈는 아버지마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자 공포에 젖어 수녀들의 무리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동료 수녀들이 체포되어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오자 스스로 단두대에 나타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린 수녀와 함께 담담하게 순교를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단두대의 칼날이 연이어 떨어지는 음향은 낭랑특집 효과로도 충분할 것이다. 초연 당시 이탈리아어로 공연했던 라 스칼라 극장은 2004년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불어 원전판을 무대에 올렸다. 원로 소프라노 안나 실라가 수녀원장 역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고 창의력 넘치는 연출가 로버트 카슨이 종교적 분위기와 죽음의 공포가 잘 살아난 무대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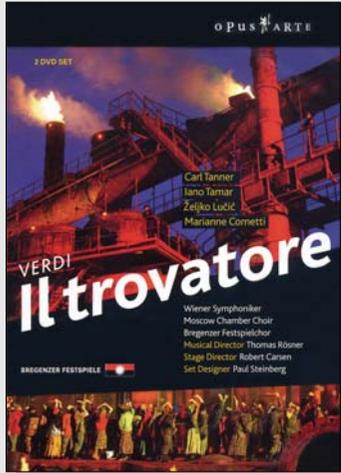
[보충 자료]

○ 프란시스 플랑(1899~1963)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곡가의 한사람이다. 유머 넘치고 리듬 감각이 빼어난 작품들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기악-u과 가곡을 남겼으며 오페라 작곡가로도 <테레시아스의 유방>같은 것은 그의 일반적인 특징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는 순교를 주제로 한 고전적인 작품이고 노래하는 창법의 특징과 투명한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오페라이자 모놀로그 작품인 <인간의 목소리>도 사랑을 잃고 옛 연인과 통화하면서 죽음에 다가서는 한 여인을 담은 목직환 작품이다.

○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는 질서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체가 3막인데 각 막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총 12장이다. 주인공은 블랑슈이지만 첫 수녀원장과 후임 수녀원장, 콩스탕스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교의 길에 오르는 수녀들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0974(2DVDs)

젤리코 루치니(루나 백작) 등은 이 오페라의 큰 스케일과 육중한 무대에 어울리는 극적인 가창을 펼친다. 배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호수는 행복한 덤이다.

[보충 자료]

○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엇갈리는 것이 <일 트로바토레>이다. 그의 다른 오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적인 스케일이 크고 가수들은 온몸의 힘을 총동원해서 목청껏 노래해야 한다. 음악적인 박력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오페라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과시적인 오페라의 대표작이란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오페라야말로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가 확립한 벨칸토 오페라의 모든 미덕과 그 한계를 극한까지 구현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캐나다의 로버트 카슨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연출가이지만 특히 배경과 캐릭터를 새롭게 설정하여 오페라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관객들을 더욱 열광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카슨 혼자만의 능력만은 아니다. 그는 드라마투르기를 전담하는 이안 버튼이란 뛰어난 구성작가와 함께 일을 한다. 이 <일 트로바토레>의 드라마투르기도 이안 버튼이 담당했다.

○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 위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 세트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공연하므로 1년에 한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프로그램이 <일 트로바토레>였고 2007년 프로그램은 <토스카>이다. 객석은 호반에 설치되었으므로 관객들은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면에 설치된 무대의 오페라를 즐기는 것이다.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호상(湖上) 무대에 구축된 거대한 핏빛 조형물

잘츠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브레겐츠는 매년 여름 호수 위의 무대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페스티벌로 명성이 높다.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라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호반 무대의 원조요, 빈 필의 라이벌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는다는 강점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축제 60주년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연출가인 로버트 카슨을 초대하여 큰 스케일의 <일 트로바토레>를 꾸며냈다. 원작의 배경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슨은 이 오페라의 무대를 현대의 거대한 정유공장으로 설정했다.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붉은 핏빛의 거대한 조형물은 이 오페라의 투쟁성과 섬뜩한 결말을 예고하며 등장인물의 위상도 재설계되었다. 즉 루나백작은 이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못된 자본가요, 만리코는 공장에서 쫓겨난 중업원들로 구성된 유격대의 우두머리로서 루나 백작과 겨루는 것이다. 한창 떠오르는 미국의 드라마틱 테너 칼 태너(만리코), 그루지아 출신의 스타 소프라노 이나노 타마르(레오노라), 유고 출신의 바리톤



Opus Arte OA0981

종교적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육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낸다. 프렐조카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 실황이다.

[보충 자료]

○ 안줄랭 프렐조카주(1957~)는 알바니아계 프랑스 안무가로로 다양한 현대 무용 경력을 거친 후에 1984년부터 자신의 발레단을 이끌면서 본격적인 안무 작업에 들어갔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안무가들, 즉 고전 발레의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했던 거장들을 존경하고 또 벤치마킹하면서 끊임없는 논란의 소재가 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이 DVD에 실린 두 작품의 소재도 일종의 금기에 관한 것들이다. <메데아>는 비속살인이라는 점에서 절대 편할 수 없는 감정을 지닌 채 극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MC 14/22...>는 루이스 브뤼엘의 영화 <비리디아니>가 그런 것처럼 신성모독이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무용으로 만든 것이다.

○ 파리 오페라 발레는 거의 전원(우리나라의 김용길 등 몇몇 예외를 빼고)이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 출신들일 정도로 폐쇄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공연 자체는 무척 개방적인 발레단이다. 누레예프가 무용감독으로 있던 시절에 고전 발레에 대한 수준을 세계 최고 단계로 높인 다음부터는 모던 작품도 자주 무대에 올린다. 특히 프랑스 국적을 지닌 모리스 베자르, 롤랑 프티, 안줄랭 프렐조카주 등이 파리 오페라 관계와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줄랭 프렐조카주: 메데아 / 14/22

변함없는 화제의 안무가 안줄랭 프렐조카주의 충격적인 두 무대 알바니아 이주민 출신의 부모를 둔 프랑스 안무가 안줄랭 프렐조카주는 우리 시대에 가장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안무가일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를 폭력적으로 재해석하여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공원>에서는 20세기 안무가가 만든 파드되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격적인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을 동시에 창조해내기도 했다. 이 DVD에는 프렐조카주의 21세기를 상징하는 두 작품이 담겨있다.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얘기를 다룬 것이다. 신화에 따르면 남편 이아손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에 자신의 두 아이를 죽인 비속(卑屬)살인의 상징적 인물로 남아있다. 물론 프렐조카주의 발레에도 자식을 살해하는 장면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유혈이 낭자한 색깔로 처리하고 있다. <MC 14/22 - 이것은 나의 몸이니>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착안한 것이다. 프렐조카주가 12명의 남성무용수를 위해 안무한 것인데, 얼핏 보면 최후의 만찬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겠지만 점점 그 관계에 가까워져 된다. 물론

NAXOS HISTORY



이 글은 나소스가 성공 20주년을 기념하며 홍보용으로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다음 호에 후반부의 글이
마져 실릴 것이다. 이번 내용은 나소스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정리한 나소스 소사다.

www.naxos.com

1 987년 나소스는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제공되고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특별한 재능으로 흥미롭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녹음하겠다는 혁신적 전략은 나소스 레이블로 하여금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카탈로그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나소스는 3000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최고의 음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최저 가격으로 내놓고 있다.

나소스는 클라우스 하이만이 만든 레이블이다. 독일 출신의 음악애호가로 홍콩에서 살고 있는 그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스와 리복스의 후원을 받아 홍콩에서 클래식 음악 사업을 시작했다. 연주자들이 방문하면 그들 음반들이 홍콩 음반점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데 착안, 이때 하이만은 레코드 배급을 회사의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클래식 사업의 또 다른 결과는 그가 세계적인 일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다카코 니시자키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만은 부인 니시자키와 함께 여러 음반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첫 음반이 'The Butterfly Lovers Concerto'였다. 그 음반은 바로 성공의 대열에 합류했고, 엄청난 양의 음반이 아시아로 팔려나갔다. 하이만은 이 일을 기점으로 중국 교향악에 주력하는 레이블 HK Records를 출범시켰다. 성공은 지속되었다. 또 서구 레퍼토리를 녹음하려는 열정은 마르코 폴로를 통해 싹텄다. 그 레이블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작곡된 희귀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주로 제공했다.

1 986년 CD제작비용이 떨어졌을 때, 클라우스 하이만은 버짓 프라이스의 CD레이블을 위한 기회가 생겼다고 봤다. LP와 같은 가격에 클래식 CD를 제공할 수 있는 레이블, 그 첫 나소스 출시물은 성공적이었다. 젊은 독립 레이블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들을 데리고 기본 레퍼토리부터 차분히 만들어 카탈로그를 채워나갔다. 나소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자 회사는 초심자와 컬렉터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보다 폭넓은 영역을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클라우스 하이만은 이제 초심자나 상당한 수준의 컬렉터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클래식 레이블을 만들기

로 결심했다. 아트 디지털 레코딩으로 CD의 길이를 충분히 이용하여 적어도 최고의 메이저 음반사와 경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버짓 프라이스로 말이다. 물론 메이저 음반사가 놀라운 음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늘 근심이었다. 하지만 나소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약진해나갔다.

당시 나소스는 작은 독립 레이블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예술가와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표준 레퍼토리를 녹음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나소스 카탈로그는 세계 시장에 등장한 적이 없는 젊은 연주자와 오케스트라로만 녹음을 해야 했다. 생산설비가 이미 브라티슬라바와 부다페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녹음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초기 나소스의 모든 레코딩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이뤄졌던 이유다.

나소스가 단순히 싸구려 레이블이 아니라 품질 좋은 레이블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자 나소스는 1996년부터 서구에서 녹음을 했다. 나소스 음반의 75퍼센트 이상이 서구 유럽이나 북 아메리카에서 녹음되었다. 매출이 증대하면서 레이블은 점차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예술가를 찾고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찾아 녹음하려는 예술가 정책도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조연자의 도움을 받아 나소스는 오페라나 초기 음악분야, 그리고 음악의 모든 분야의 명망 있는 연주자를 찾아 인상적인 트랙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생산체제가 정비된 후 나소스가 맞닥뜨린 또 다른 선결과제는 배급의 문제였다. 음반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소매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가능하면 아주 넓게 나소스를 배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배포망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1994년에 비로소 나소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시장에 고루 배급하는데 성공했다.

오늘날 나소스 음반은 제작비용에 근접한 가격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연주자보다는 음악에 돈을 많이 들였고, 그것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게 했다. 또 이윤이 생기면, 카탈로그에 이미 확보된 표준 레퍼토리의 또 다른

여러 버전을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음악을 찾아 녹음하는데 재투자했다. 나소스는 쇼팽 피아노 음악전집, 하이든 현악사중주 전집 같은 기본 레퍼토리의 전집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요아힘 라프, 윌리엄 헨리 프라이 그리고 펜데레즈키 음악 같이 숨겨진 혹은 현대 음악들을 발굴 녹음하는데도 무던 노력해왔다.

모든 음반들에는 편안하고, 정보가 가득하며 잘 씌어진 음악 글을 실었다. 처음에는 영어로만 넣었지만, 나중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도 함께 넣었다. 나소스의 내지는 비평가의 찬사를 종종 받아왔고, 소비자들도 글의 정확함과 생생함에 찬사를 보내곤 했다.

나소스는 DVD사업에도 열성적이다. 현재 주요 시장에 TDK, 아트하우스와 오푸스 아르테를 배급하고 있다.

나소스는 초심자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주력한 교육용 음반의 제작에도 힘써 지금까지 많은 음반을 만들어놓았다. 나소스 홈페이지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나소스가 자부하는 홈페이지에는 작곡가의 간단한 전기와 들어보기까지 마련해놓았다.

나소스는 미국 클래식 시리즈 같은 레이블을 만들어 그 개척자 정신을 크게 인정받았다. 약 100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시도된 미국 콘서트 음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레코딩 프로젝트로 인정받는다. 나소스는 히스토리컬 시리즈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기용해서 속속 내놓고 있는 전설적인 옛 연주는 LP의 향수에 젖은 애호가들의 가슴을 매달 설레게 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클래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재즈의 전설, 팝음악의 전설이 줄줄이 소개된다. 또 다른 나소스의 시리즈는 일본 클래식, 스페인 클래식, 초기 음악, 오르간 백과, 기타 컬렉션, 오페라 클래식 등이다. 세계 최고의 개척자 정신을 가진 나소스 레이블. 이제 나소스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장르에 속한 음악들을 모두 세계 음악시장에 내놓게 되는 위업을 달성했다.

실내악 분야에서 나소스는 아마 가격을 불문하고 최고의 클래식 레이블이 아닌가 싶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를 위시하여,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드보르자크의 현악 사중주 전집이 이미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미 많은 실내악 전집 사이클이 계획되어 진행 중이다.

나소스의 오케스트라에 주목하라. BBC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BC심포니 오케스트라, BBC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얼스터 오케스트라,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쾰른 실내 오케스트라,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 스웨덴 실내 오케스트라, 콜로라도 심포니, 샌디에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그야말로 막강한 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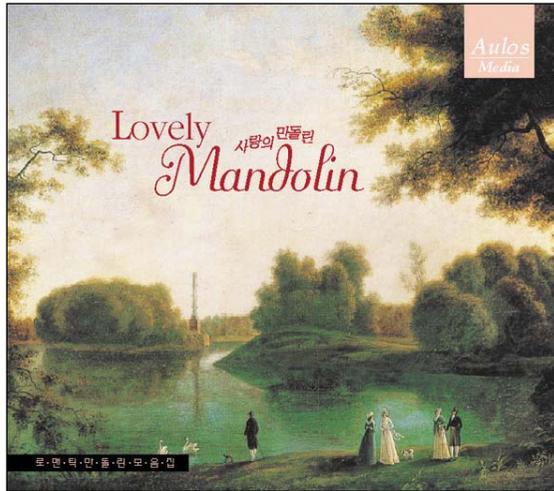
나소스의 위상을 확인하려면 세계 굴지의 클래식 음반지 음반지를 보라. 나소스는 영국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반지 그라모폰에 매달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비평가들이 뽑은 '이달의 선택'인 에디터스 초이스에도 수없이 등극했었다. 그라모폰상, 그래미상에 후보로 자주 오르는 레이블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다.

나소스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확실한 음악 백과사전을 제공한다. 그것도 적당한 가격으로.



낭만주의 시대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주옥같은 음악들로 꾸며진

사랑의 만돌린 Lovely Mandolin



밝고 화사한 사랑의 선율

류트족의 발현악기 만돌린은 '작은 만돌라'란 뜻으로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옛 악기인 만돌라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폴리식과 밀라노식의 만돌린이 있었지만 나폴리식이 19세기 말엽에 개량되어 차츰 주류가 되고 밀라노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기원으로 알 수 있듯이 만돌린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악기인데, 코발트 빛 지중해와 화창한 남국의 날씨와 풍토를 그대로 닮은듯 밝고 화사하며 낙천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이탈리아는 만돌린 예술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었는데, 이 음반에 담긴 매혹적인 음악들은 그 증거가 된다. 그러면 당시 만돌린 음악에 특별한 레퍼토리들을 제공했던 음악가들의 면모와 그 레퍼토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비토리오 몬티(Vittorio Monti)는 1868년에 나폴리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였다. 나폴리 음악원에서 핀토(Pinto)한테 바이올린을 세라오(Serrao)한테 작곡을 배운 후, 파리에 가서 공부하다가 1886년부터는 파리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는 라무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했고, 1900년부터는 그곳 음악 홀 오케스트라를 맡아 잠깐 오케스트라 지휘자 생활도 했으나, 곧 바이올린, 만돌린, 음악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발레곡을

작곡하고, 몇몇 짧은 오페레타나 다른 무대음악도 썼다. 대개 그가 쓴 작품들은 가벼운 성악곡과 기악곡들이었다. 이 음반에 실린 '사랑의 속삭임'이란 곡은 프랑스의 활동 배경을 암시하듯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트레몰로 음이 하강하며 애뜻한 마음을 전하는, 낭만적 정감이 가득한 음악이다. 하지만 몬티의 많은 작품 가운데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곡을 한 곡만 꼽으라면 단연 차르다슈다. 그의 이름을 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 이것은 흔히 집시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연주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원곡은 바이올린 곡이지만 이 음반에서는 만돌린으로 연주되고 있다. 원래 차르다슈는 18세기 후반 헝가리의 한 경기병이 집시악단의 반주로 베르분코슈(verbunkos)춤 춘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4분의 2박자이며 라수(lassu)라는 우수에 찬 느린 도입부와 프리스(friss) 혹은 프리스카(friska)라고 불리는 빠르고 격렬한 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부에서의 강력한 싱코페이션 리듬이 특징이다. 약간은 우수를 느낄 수 있으나, 아무리 무덤덤하게 있으려고 해도 점점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신나는 명곡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코스탄티노 베르투치의 '정월사가 있었다네'도 애절한 만돌린의 선율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작품이다. 전체는 만돌린과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변주로 되어 있다. 기복이 큰 선율에 간절한 심정을 담은 듯하여 사랑고백을 할 때 쓰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루이지 덴차는 1846년에 태어나 1922년에 세상을 떠난 나폴리 작곡가다. 덴차는 나폴리 음악원에서 메르카탄테한테 배웠고, 오페라도 썼다. 하지만 그의 본령은 따로 있었다. 대중 명곡을 600편이나 썼던 그는 그야말로 '나폴리의 슈베르트'라고 할만한 노래작곡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덴차(Denza) 역시 단 한곡이 너무도 유명해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1880년 나폴리 등산전차 개통을 위해 썼던 '푸니쿨리 푸니쿨라(Funiculi, Funicula)'라는 세계적인 애창 명곡이다. 하지만 이 음반에서 선택한 그의 곡은 오히려 차분하다. 밤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녹턴이다. 다소 가라앉은 피아노 반주에 얹혀지는 만돌린 선율이 실로 매혹적이니 멀리 별밤하늘의 정경을 묘사한 듯 하다. 중간에 좀 격렬한 섹션이 등장하지만 곧 잔잔하게 마무리된다. 소렌토를 소재로 한 나폴리 명곡 가

운데는, 비록 '돌아오라 소렌토로'만큼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주제때 실베스트리의 '소렌토의 추억'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나폴리만을 사이에 두고 나폴리와 마주보고 있으며, 포도주와 올리브의 생산지로 유명한 그곳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 한껏 그리움을 표현한 것 같은 작품이다.

1863년 나폴리에서 유능한 악기 제작자의 아들로 태어난 라파엘레 칼라체는 만돌린을 위한 작품을 무려 200편이나 썼던 만돌린 작법의 대가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무척 아름답지만, 기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 음반에 실린 '향수의 노래'도 그리 만만한 곡은 아닌데,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고향을 향한 하염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진한 정감으로 연주된다. 이어지는 곡은 플렉트럼(Plectrum)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트레몰로 음향이 인상적인데, 1851년 11월 25일 브레시아에서 태어나 1908년 8월 2일 크레모나에서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 레키의 '노비타와 지혜(Nobita e saggezza)'란 작품이다. 레키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다. 다만 '크레모나 필하모닉 협회(Filarmonico in Cremona)'의 회원중이나 교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는 정도의 정보가 '크레모나 만돌린 서클' 첫 10년간의 콘서트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인물이 아닐까 추측하게 만든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의 '레키(Lechi)'란 이름이 브레시아의 음악 명문가를 연상시키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몇몇 다른 문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Lecchi'라고 더블 스펠링으로도 기록된 것으로 봐서, 아마 알려지지 않은 가문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로맨틱한 정서 가득 실린 현악기들과 융화되어 있는데, 그 작은 목소리들이 은은하게 배경으로 합주하고 있는 것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매혹적인 콘서트 왈츠 작품이다! 비슷하게 축제 분위기를 잇는 것은 <지오콘다> 중의 '시간의 춤'으로 유명한 폰키엘리의 작품이다. '애인(I Innamorata)'이란 제목의 마주르카인데, 원형으로 둘러선 여러 쌍의 남녀들이 발을 구르며 사뿐 사뿐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앞에 그려지는 참으로 예쁜 춤곡이다. 푸치니나 마스카니의 선생이었고, 베르디나 푸치니의 명성이나 성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음악가에 속하는 폰키엘리.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단순하고 귀여운 춤곡이 선사하는 매력에 잠깐 폭 빠져보게 된다. '아이들과 꽃들'은 제목 그대로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는 곡인데, 1859년 라리오에서 태어나 1918년 크레모나에서 세상을 떠났던 이탈리아 음악가 미켈레 달레산드로의 소품이다. 파르마 음악원 출신의 달레산드로는 1891

년부터 크레모나 시립 밴드에서 코넷 연주자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주로 크레모나를 무대로 코넷 솔로리스트와 악단을 이끌었던 음악가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노벨라나 오페라, 오페레타를 써서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이름을 알렸지만,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지는 못했다.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과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함께 어우러져 방긋 방긋 웃는 것 같은 흥겨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풀카다. 작곡가의 허락 하에 피아노로도 연주되지만, 이 음반에서는 더 일반적인 두 대의 만돌린과 기타를 위한 버전으로 연주했다.

오레스테 리바는 1862년에 크레모나에서 태어나서 1936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 음악가다. 파르마 음악원에서 보테시니(Bottesini), 다치(Dacci), 보이토(Boito)한테 배웠고, 1889년에 첼로 디플로마를 받고 학교를 졸업했다. 만투아의 수차라 밴드, 모데나의 마란돌라 밴드, 베로나의 카스타냐로 밴드 등을 이끌었고, 고향 땅 크레모나로 돌아와서는 주로 작곡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첼리스트일뿐만 아니라 시인이며 음악 평론가였던 그는 '필라데 스포나(Pilade Sponda)'란 필명으로 음악 관련 글을 쓰기도 했었다. 작곡가로서 그는 오페라, 오페레타, 발레 음악등을 남겼다. 두 대의 만돌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인 '게이셰(Le Geishe)'는 1908년에 밀라노의 '일 플레트로(Il Plettro)'란 만돌린 잡지가 세상에 소개했던 것이었다. 만돌린과 피아노만으로,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사색적이며 무엇인가를 애원하는 듯한 선율이 차분히 흐르는데, 루이지 푸치의 '기도'다. 푸치는 1868년 카바 데 티레니에서 태어나 1920년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음악가인데, 나폴리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대위법과 작곡법을 공부했고, 팔레르모 음악원에서는 밴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배운 후, 바이올리니스트와 밴드 지휘자로 오랜 경력을 쌓았다. 이제 분위기를 다시 밝게 일신하며 마무리하는 곡은 풍성한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마치 즐거운 향해를 떠나는 듯한 주제때 덴티의 '스케르초'다. 마음을 동실동실 들뜨게 만드는 작품이다. "한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굿바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모두 사랑이 넘치고 밝은 곡인데, 약간의 우수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매혹적인 에스프리로 승화하고 있다. 차별할 지언정 어두운 음악은 단 한 곡도 없다. 모두 만돌린이란 악기의 성향에 꼭 맞는 작품들이며 이탈리아인 특유의 낙천성을 충분히 반영한 레퍼토리들이라고 본다. 사랑에 빠진 사람, 가슴속에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분을 제공하게 될 음반이라는 생각이다.

글. 이성일

기대했던 그 바람 그대로, 드디어 발매!

여행자의 노래 4집 World Music Compilation



2003년 첫발매되어 월드음악계에 이정표를 세운 [여행자의 노래 1] 이후 시작된 이 아름다운 전설은, 오늘 [여행자의 노래 4]가 발매된 2007년까지 이어진다.

월드음악 장르는 영미권 팝과 대중음악에 가려 그간 애청자선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몇몇 드문 라디오방송과 영화 OST, 그리고 선곡음반을 통해 가끔 귀를 솔깃하게 하는 노래들, 낯선 노래들은 어김없이 제3세계권 감추어진 월드음악이거나 영미권 인디음악이었다. 시인이자 수필가, 여행길에 직접 연주와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리는 선곡자 임의진은 독특한 아티스트다. 더구나 그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급진 개신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남녘교회>의 담임목사였다. 이후 모든 바깥활동과 목회를 접고 전남 담양 산골짜기에 들어가 산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 너무 심심한 나머지 어느날 비행기에 오르면, 음악은 그의 여행 길동무가 되어준다. 시인과 동행하는 월드뮤직은 애잔하면서도 적요하고, 소소하며 오붓하다. 그는 서울하고는 한참 떨어진 외딴 시골에서 적절한 나날이지만 그의 흥방에는 만여장도 훨씬 넘는 희귀 월드음반들로 가득차 있다. 혼자 듣기 아쉬워 고르고 고른 노래들은 속속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발매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드문 이러한 임의진의 선곡 음반은, 일본의 한 음반사의 눈에 띄어 내년부터는 일본판(PSF 레코드/ 여행자의 노래 오리엔탈 특

급열차)으로도 발매될 예정!

이번 [여행자의 노래 4]는 명성 그대로, 강렬한 여운을 안겨주는 선곡이다. 전남 여수에서도 멀리 들어가는 외딴 섬마을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일하는 포크 싱어 이안 라이드의 절창, 한국에 오로지 한사람 뿐일 아트포크록의 전설 김두수가 부르는 클레멘타인, 북미 포크의 대모 페기 시거 여사의 초회귀 라이브 실황, 선댄스 영화제의 로 혜성처럼 나타난 음유시인 글랜 헨사드의 숨겨진 보물같은 노래, 일본 인디 포크의 중심축인 명장 사이토 테츠오의 노래, 그 자신 집시이며 연주자인 하이드 밀러의 집시풍 노래, 연극과 영화의 배우이자 저명 작가인 이탈리아의 뮤즈 리나 사스트리의 나폴리 민요, 아라비아풍으로 노래하는 노우 블루스, 재즈 싱어 사라 케이가 부르는 잔잔한 노래에 여행길이 차분해질 것이다. 아르메니아 초원에서 불리우는 자장가와 밴드 올디너리 타임이 부르는 성탄 캐럴은 이 늦더위에 설원의 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러시아의 스파세니예와 미시간의 브레스 아울 브레스는 겨울까지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줄 것이다. 국내에 모두 처음 소개되는 이 음원들은, <나는 사진이다>의 유명 사진가 '김홍희'의 미공개 <몽골기행> 전작들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전시회에 버금간다. 선물로 담겨 나누어질 사진엽서들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노래 1>부터 임의진과 함께 동행하는 우정 또한 깊고 다정하다.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가 갖는 최대 독특함은 바로 부클릿을 장식하고 있는 임의진의 수필일 것이다. 임의진이 여행길에 글썽인 스무편의 짧은 감상을 통명한다. 현재 '경향신문'에 매주 수필과 삽화를 연재하고 있는 임의진은, 수필집 <참꽃 피는 마을>을 비롯하여 유려한 문체를 인정받고 있는 작가다. 어찌보면 판청을 부리는 듯한 그의 여행기는, 물끄러미 턱을 받친 손처럼 아릿자릿 저려오는, 특이한 감상에 젖게 만든다. 시리즈의 결정판이라 볼리게 될 4집에 담긴 글 또한 어김없다.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선곡자 임의진 디스코그래피]

저서/ 참꽃 피는 마을, 종소리, 사랑, 마음의 풍경, 예수동화 등 음반/ 여행자의 노래 1-4, 기차여행, 보헤미안, 산1-2, 집시의 혀 등 홈페이지/ <http://www.sunmoodang.com>

[여행자의 노래 4집] 수록곡 소개

1. Ian Reid/ Art Girl
2. Heidi Muller/ Gypsy Wind
3. Peggy Seeger (LIVE)/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4. Liuba Maria Hevia/ Mariposita De Primavera (마리뽀씨따 데 뿌리마베라 -봄 나비)
5. John Southworth & The South Seas/ Holy Mackerel
6. Glen Hansard & Marketa Irglova/ Sleeping
7. Saito Tetsuo (斎藤哲夫 사이토 테츠오)/ Bye Bye Good-bye Sara Bye
8. Choloman/ Febrero (2월)
9. Mormors visor (모르모르스 비소르)/ Sădan är kärleken (소단 애르 케르레켄 -그것은 사랑)
10. Cindy Doire/ Quel Dommage (유감이에요)
11. Lina Sastri (LIVE)/ 'O Surdato Nnamurato (사랑에 빠진 병사)
12. 김두수 Kim Doo-Soo/ 클레멘타인 (Clementine)
13. Sara K./ A Whiter Shade Of Pale
14. Спасение (스파세니예)/ Ya Poidy Za Toboi (야 빠이두 자 따보이 -당신 걸로 가리)
15. No Blues/ Ya Dunya (그대의 세상)
16. Breathe Owl Breathe/ Toboggan (터보건 썰매)
17. Ordinary Time/ Here Now, You House Of David (크리스마스 캐럴)
18. Hasmik Harutyunyan with the Shoghaken Ensemble/ Nazei Oror (나자의 자장가)
19. Sean Hayes/ Cool Hand



슬픈 선율의 마술사

마이클 호페 '슬픈 풍경'

Michael Hoppé



"SOLACE(위안)"란 음반으로 그래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영국 뉴 에이지 음악의 거장 마이클 호페.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오늘날 뉴 에이지 음악 장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음악가 중의 한 사람이다. 영화 음악으로도 이름을 떨쳤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널리 알려진 진 핵크먼 열연의 "미스언더스투드(Misunderstood)", 미국의 주요영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고, 오스카상 단편영화부문의 후보로도 올랐었던 "바람의 눈(Eyes of the Wind)"에서 놀라운 배경음악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도 바로 마이클 호페다. 호페는 1988년에 첫 앨범을 내놓았는데, 그 전 1969년부터 약 15년 동안은 플리그렘이란 메이저 음반사에서 근무했었다. 음악비즈니스맨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특별한 이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발굴해서 음반을 내고 빅 히트 했던 인물을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놀랍다. 호페는 반젤리스, 장 메셀 자르, 기타로 등 세계적인 뮤지션을 발굴해낸 사람이고, '더 후(The Who)' 같은 유명한 밴드나 스웨인의 최고 인기 그룹 아바(ABBA)와 함께 대성공의 기쁨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호페다. 호페의 음반들은 많은 음반 상에 빛난다. 유명한 "The Yearning(그리움)", "The Lover(연인)"이란 음반 외에도 "Afterglow(저녁놀)"란 음반은 인디 2000 컨벤션의 베스트 뉴 에이지 앨범으로 선정

되기도 했었다. 물론 그의 음반들은 지금도 새로 나오기만 하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미 여러 개의 골드 혹은 플래티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애뜻하고 아름다운 서정

많은 뉴 에이지 음악이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마이클 호페의 음악에는 그 감성이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 단순히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는 선율에는 아련한 슬픈 이미지가 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호페는 늘 슬픔을 얘기하지만 그 이미지나 풍경들은 모두 '아름답게 아름답다'. 호페의 슬픔은 대개 깊은 사름에 빠진 그것도 아니요 물론 통곡할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것도 아니다. 이 대목은 물론 뉴 에이지 음악의 특성으로 뉴 에이지 음악이 경량급이라는 질타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뭔가 통렬한 비판의식도 없고 깊고 깊은 사색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페는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아련한 꿈, 지난 사랑과 추억에 대한 '편안한 반추'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호페의 감성도 뉴 에이지 음악가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상당한 중량이 나간다.

주옥같은 베스트 넘버

이 음반에는 이미 CF를 통해 널리 알려진 '링컨의 슬픈 노래'를 포함하여 '작별', '잊을 수 없는 마음' 등 제목만 보고도 애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명곡들이 대거 수록되었다. 호페의 음악은 거의 슬프지만, 그 슬픔은 한 두 번 걸러진 것이다. 이점을 살피기 위해 베스트 중의 베스트 넘버로 마이클 호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곡인 '링컨의 슬픔'을 예로 들어도 좋겠다. 여기서 링컨이란 물론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일컫는다.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휘하여 민주주의의 전통과 연방제를 지키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다섯 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가 모두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다. 귀한 자식들을 잃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고 먼저 말하고, 링컨은 하지만 아들이 거



룩한 죽음을 맞이했고, 아들의 죽음이 장래의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구구절절한 위로의 편지를 썼다. 호페가 그런 사연이 적힌 링컨의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작곡했다는 음악이 바로 '링컨의 슬픔'이다. 모르고 들으면 어찌면 그렇게 매혹적인 선율을 만들었을까 정도로 생각되겠지만 사연을 알게 되면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곡이다. 하지만 호페의 음악은 슬픔 자체를 노래했다기보다는 슬픔을 이성으로 맑게 정제한 이미지를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슬픔을 겪은 부모의 가슴을 위로하는 메시지 정도로 들리게 만든다. 호페가 슬픔을 얼마나 자기 방식으로 잘 정제해서 이미지화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스크르 감기는 기타의 잔잔한 선율이 시작될 때부터 가슴이 울렁거리게 한다.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자꾸만 되돌려 듣고 싶은 것이 이 명곡이다. 이 음악도 이미 CF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호페가 얼마나 탁월한 선율의 마술사인가를 확실히 각인 시키는데 일조했다. 한숨과 같은 기타란 현악기 선율이 피아노와 대화하는 '은막의 로망스'는 서로 다른 얘기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웬지 분위기는 유명한 영화 '다스트 콘서트'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쓸쓸한 명곡 '10월'도 영화의 한 장

면을 떠올리도록 만든다. 공원에 스산한 바람이 날아와 나뭇가지를 할퀴고 바닥에는 낙엽이 튀구는 깡마른 가을정경이 쉽게 연상된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이별의 계절이기도 하다. '작별'은 제목 그대로 이별의 정서를 기초로 했다. 하지만 그 슬픔은, 호페의 방식대로, 그저 단정한 이미지일 뿐이다.

우아한 춤곡의 애잔한 이미지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호페는 슬픈 이미지를 즐기는 음악가다. 심지어 '춤'이란 단어를 선택한 곡들, 이를테면 '속삭이는 것들의 춤', '마그다의 춤', '회전초의 춤'에서조차도 그는 대부분 밝고 활기찬 기분의 음악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춤'이란 말로 썼지만 호페가 선택한 말은 엄밀히 말해 '왈츠'다. 하지만 호페가 선택한 것은 그 춤곡의 우아한 박자일 뿐 18세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독일, 오스트리아의 춤곡과는 별 연관이 없다.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원을 그리면서 추는 왈츠에서 정감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에 호페는 애잔한 선율을 엮어 노래하기 위해 자신이 즐겨 쓰는 그 편안한 박자를 데려온 것 같다. '아이들의 춤'은 주인공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아니면 아이들

이 춤추는 것을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것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얘기하는 듯하다. 음악 전체에는 뭔가 모르게 아득한 슬픔을 가득 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주범은 단순한 화음 반주를 타고 울리는 3박자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다. 피아노 음향은 마치 절반 정도 물이 차있는 잔을 두드릴 때 나는 반투명한 소리다. 시소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고요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마그다의 왈츠'도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이 베스트 음반에 처음부터 간택된 레퍼토리다. 바람소리 같은 효과음이 들어가 있고, 관악기의 노래조차도 희미한 허밍처럼 한 겹 입혀져 들리는 춤곡 '회전초의 춤'은 앞의 춤곡들보다는 확실히 경쾌하게 들린다. 클라리넷을 포함한 관악기와 군데군데 나타나는 기타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서커스의 꿈'은 보다 즐겁고 정겹게 느껴지는데,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박자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춤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아주 단순한 멜로디와 반주와 화성으로도 그렇게 온화하게 느껴지는 풍경을 그려낼 수 있는 호페의 재능에 새삼 감복한다. 도돌이표로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의 곡이라서 호페는 어쩔 수 없이 단정한 두 음을 가져와서 맺고 있다. 하지만 그리 급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미치도록 아름답고 슬픈 노래

이 음반에 실린 호페의 음악들 가운데 가장 슬프게 느껴지는 음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드의 주제'를 우선 앞세울 것 같다.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문 현악기의 구슬픈 선율이 마치 물에 빠진 잉크방울처럼 퍼져나간다. 중간에 피아노에게 주제를 건네주고 나서 현악기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더욱 더 미친 듯이 흐느낀다. 이 음반에서 가장 긴 곡 중의 하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꼭 붙들고 흔들어놓는 묘한 효능이 있는 음악이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면 아마 금세 평평 울 것 같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꽤 슬프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음악은 '잊을 수 없는 마음'이다. 쓸쓸하면서도 생각에 잠긴 기타의 음률이 이내 가슴을 저미게 하는데, 이곡은 우리에게 특히 친숙하다. TV 인기 드라마 <가을 동화>에 삽입되어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음악이기 때문. 이런 음악이 없었다면 드라마가 그토록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마지막 곡은 호페의 최신 곡으로 기쁨도 슬픔도 없고 무덤덤하게 부드러운 노래다. 이제까지의 작은 슬픔, 깊은 슬픔을 모두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곡까지 듣고 난 가슴. 글썽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멍할 정도의 감동을 얻었다고 말하리라.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음악

호페의 음악은 수많은 뉴 에이지 음악들 가운데서도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음악에 속하는데, 그런 속성은 호페가 선율을 가져오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호페의 독특하게 슬프고 편안한 선율은 피아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을 직접 접하고 그것을 면밀하게 통찰하는 가운데서 '언어진다'. 호페에게 도대체 그 아름다운 선율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어떤 대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곳에서 선율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것들을 모은 것이 자신의 음악이라고 말할 것 같다. 많은 뉴 에이지 음악들이 천편일률적인 선율로 만들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페의 음악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는 높은 평가를 보내야 하는 이유를 보충해준다. 이 음반에서 흘러나오는 호페의 음악들은 이미 애호가들에게 더없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들이다. 그간에 나온 마이클 호페의 명반들 가운데 그야말로 주옥같은 선율들만을 엄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레퍼토리만 훑어보고도 '정말 주옥같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감히 말한다. 호페의 베스트 중의 베스트 음반이 바로 이것이라고. 아울러 최신 곡을 포함해 몇몇 레퍼토리를 선택하는 데 마이클 호페의 직접적인 조언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놓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 이성일



노르웨이의 신비스러운 바이올리니스트

수사네 룬덴 Susanne Lund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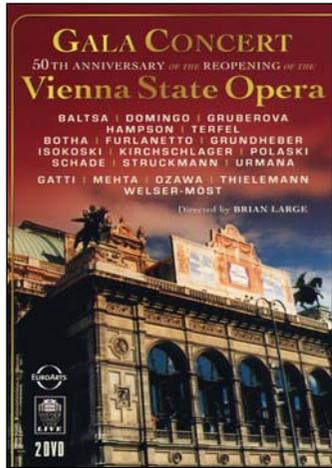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사람 (Jeg Ser Deg Sote Lam)'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 수사네 룬덴. 국내에서만 3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곡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그녀가 이번 내한 공연을 기념하여 베스트 음반을 출시하게 되었다.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그녀의 이름

만큼이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하다. 이번 내한공연은 브라질, 쿠바, 세네갈, 노르웨이, 대한민국 등 4대륙 12개국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이 참가하는 '2007년 원월드뮤직페스티벌'이며 이에 수사네 룬덴이 초대되어 해금 연주자 정수년과 협연을 한다.

'2007년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공연안내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
- 기간 : 2007년 10월 4일~7일 <이천 메인 공연 : 10월 4일(목:전야제)~7일(일)>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S
- 주관 : 원월드뮤직페스티벌추진위원회
- 후원 :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이천시, 네이버

이 감동적인 DVD...내한 공연과 관련하여 또다시 폭발적인 인기!
빈 국립 오페라 재개관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EuroArts 2054928 (2 DVDs)

다섯 명의 마에스트로들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정상급 가수들이 등장하는 사상 최고의 갈라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2005년 11월 5일 빈 국립 오페라 재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갈라 콘서트. 세이지 오자와, 프란츠 벨저-뫼스트,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다니엘레 가티 등 다섯 정상급 지휘자들이 번갈아 지휘봉을 잡았고, 도밍고, 발차, 그루베로바, 햄스, 터펠, 폴라스키, 이스코스키 등 최고의 오페라 스타들이 줄줄이 등장하여 화려한 오페라의 향연을 펼쳐나간다. 이날의 공연 프로그램은 재개관 시즌 당시 무대에 올렸던 오페라 들 중에서 돈조반니, 피렐리오, 장미의 기사, 아이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그림자 없는 여인의

여섯 작품을 택하여 각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콘서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오페라 애호가들이 아니더라도 3시간 동안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 갈라 콘서트의 푸짐한 성찬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7년 가을, 고전음악계 최대 이슈

드디어 빈 슈타츠오페가 한국에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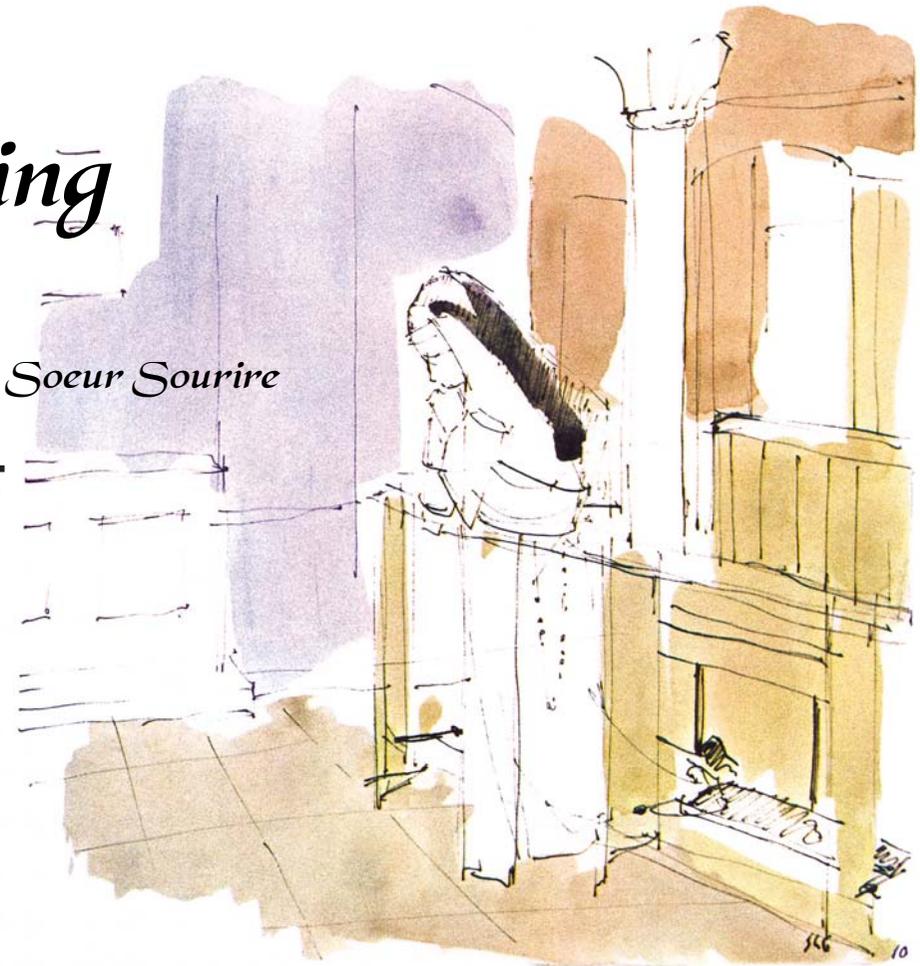
오스트리아 빈의 링슈트라세에 있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Wiener Staatsoper)가 마침내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140년 가까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의 오페라단이 9월 19일과 2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모차르트 최고의 걸작 오페라이며 최대 성공작인 <피가로의 결혼>이다. 비록 무대 장식과 의상착용 이 없는 오페라 콘체르탄테 형식으로 선보이게 되지만 유럽 최고의 음악 도시 빈의 가수와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공연은 초가를 저녁을 열화와 같은 박수와 찬사로 뜨겁게 할 것이 분명하다.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현재의 음악 감독,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오자와 세이지다.

이번 공연과 관련하여 현재 영상물 하나가 매우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빈 국립 오페라 재 개관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DVD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유로아츠 DVD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감동적인 공연이 있는 후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관심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휘자는 세이지 오자와 한 사람이지만, DVD에서는 세이지 오자와는 물론이고, 이 오페라의 차기 음악 감독에 내정된 프란츠 벨저-뫼스트, 그리고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다니엘레 가티 등의 명지휘자들을 볼 수 있다. 너무도 보고 싶던 인물들이다.

The Singing N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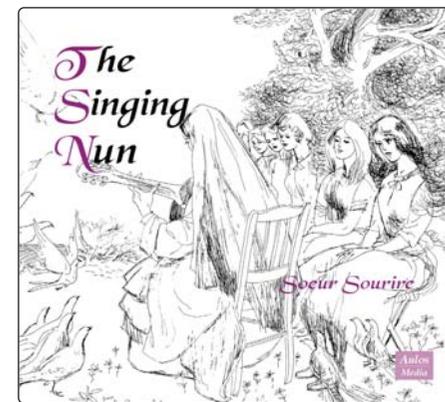
Soeur Sourire

노래하는 수녀



60년대 빌보드 차트 1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를 눌렀던 바로 그 노래들



수에르 수리르

The Singing Nun _ 노래하는 수녀

- 70년대 번안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던 타이틀곡 '도미니크'
- 방송에 나오면 문이개 쇄도했던 노래들. 하지만 정작 구할 수 없었던 음반
- 4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
- 노래만곡이나 아름다운 재킷 프랑스어 가사와 한글 번역 포함
- 수녀의 생활모습을 그린 여러 스케치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à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우리 악기의 매혹을 전하는
퓨전 음악이야기



김성민 피리 연주곡집

‘羽化^{우화}’



안산 시립 국악단의 피리 수석이며
퓨전 국악 연주단 '김성민 스토리'를 이끌고 있는
김성민의 독특한 퓨전 국악앨범.
이미 미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배철수의 음악캠프, 윤도현의 리브레터, KBS국악한마당 등에 출연해
자신의 이미지를 알렸던 그가 이제 자신의 음악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있는지 이 한 장의 음반이 잘 보여준다.

호소력 강한 태평소의 음색과 무거운 락 사운드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인트로(Intro)'를 시작으로 '도시를 뒤로 하고', '낮은 사진첩', '분노의 정', '가을피리', '한 장의 편지', 'Dear SK', '아름다운 입술', 'Dacapo' 까지, 모두 일상생활의 성찰과 자전적 경험과 반성에서 온 강렬한 색채의 음악들이다.



표지사진 : 장대건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9월호
통권 제 26호 발행 : 2007년 8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